

2021년 가을호 vol.164

# 이화 동창

대바자회 온라인 개최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삼정KPMG 부대표 및 WIN 회장 서지희 동창

만나고 싶었습니다/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김혜순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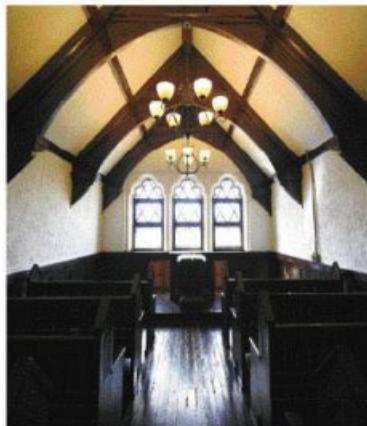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돋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베풀 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4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1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3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1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4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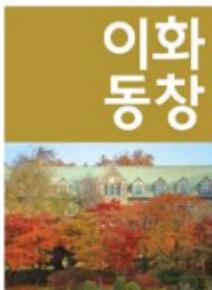
###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사진  
황규호(보교 교육학과 교수)  
늦가을 이화의 감사 기도(2019)

#### 편집위원

남상택(달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달리 88, 총동창회 총무)  
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이영희(사학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허윤선(정의 89, 편집위원)

발행 2021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1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 03 2021 총동창회 대바자회

대바자회 온라인 개최

#### 09 축하합니다

아배용 동창 외

#### 11 이화의 기도처 순례

초기 대학교회로 사용된 중강당

#### 13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김혜순 동창

#### 17 이화비즈

로얄앤클퍼니 문화사업부 대표 김세영 동창

#### 21 우리는 이화 가족1

유관순 열사와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김복희 동창과 그의 손녀 전혜인 동창

#### 26 우리는 이화 가족2

조숙자·조정실·조경실·조만실 네 자매 이야기

#### 29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회계법인 삼정KPMG 부대표 및  
여성리더모임 WIN 회장 서지희 동창

#### 33 이화인 모임 탐방

10주년 맞은 이화의료봉사회

#### 36 선교지에서 온 편지

케냐 이형란 동창

#### 38 모교 소식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온라인 개최 외

#### 44 총동창회 소식

8월 정기임원회에서 하반기 주요 일정 논의 외

#### 46 선교부 소식

동창 선교사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화요 기도 모임 가져

#### 49 대학(원) 소식 약학대학 외

#### 49 과(학부) 소식 영어영문학과 외

#### 51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 57 동창 근황 고 박보희 동창 외

#### 63 동창이 피낸 새 책

『나그네 삼부작』 외



03



11



13



21



29



33



##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역대하 7:15-16)



사랑하는 하나님,

각양의 영역에서 각양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잦아들지 않는 크고 작은 안타까운 소식들로 인해  
너 나 할 것 없이 몸과 마음이 쇠잔해져 가는 이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피조 세계는 당신의 기운으로 아름답고  
오곡백과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두 손 활짝 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다른은 무조건 틀림으로 마구 우겨대고 홀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저린 한숨 쉬며 도고의 자리 찾아 이화동산으로 걸음 옮기니  
이화 교정은 텅 비어 있고 기도처마다 빛장 걸려 있어  
문지방 넘나들 수 없는 아쉬움으로 훠이훠이 팔복동산 향해 오릅니다.  
둥그스레 터 잡고 있는 남은 그루터기 한켠에 자리하고 앉아  
가을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에 시리운 눈 지긋이 감아 보니  
이 땅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화'를 아끼고  
나라와 민족과 온 땅을 사랑함으로 무릎 꿇어 간구하시던 한분 한분이 떠오르면서  
소망의 출기 타고 큰 위로가 출렁 밀려오며 두 손 꼬-~ 모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인생들은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만  
여상하신 은혜로 귀 기울이시고 두 팔 벌려 안아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처럼  
여전히 기다리고 반기며 맞아 주는 정다운 기도의 동산에 머물러서  
모교 '이화'는 주님께서 친히 줄로 재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요  
주님 외에는 '이화'의 복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화다움'의 으뜸임을 묵상하면서  
궁휼하심을 죄아 선지자 하박국의 친양을 노래하며 두 손 높이 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질 좋은 상품 제공하고 착한 소비로 호응한 시공간을 넘어선 정겨운 장터

총동창회는 9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모교 장학기금 및 모교발전 후원금 모금을 위한 대바자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한가운데에서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비대면으로 치러진 대바자회에는, 각 과와 지회 및 대학(원)에서 총 30여 개 팀이 참여하였다. 각 팀에서 준비한 5분 내외의 물품 홍보 영상을 5개로 크게 묶은 뒤 총동창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동창들은 물품 목록표를 참고하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참여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대바자회 시작을 알리며, “캠퍼스의 가을을 느끼며 동창들과 직접 만나 정성껏 준비한 물건을 판매하는 즐거운 대면의 시간을 가지지 못해 아쉽다”면서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였으니 많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태풍을 뚫고 온라인 촬영에 나선 8팀 현장 스케치

총동창회는 고화질 영상 촬영을 위해 모교 산학 협력관에 입점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8월 24일(화)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 임시 스튜디오를 꾸미고 홍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날 참여하지 못한 팀은 규격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또는 상품에 대한 사진과 설명서를 총동창회로 보내 일괄 편집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

온라인 대바자회 시작을 알리는 남상택 총동창회장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고 준비에 들어간 8팀은 올해의 첫 태풍 오마이스를 뚫고 동창회관에 마련된 스튜디오를 찾았다. 총동창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진행자를 포함해 각 팀별 4인까지 참석을 제한하고, 촬영 시간표를 만들어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였다.

“시작과 끝에 인사할 때 고개 숙이지 말고 눈으로 자연스럽게 인사해 주세요.” 5분 내외의 영상 제작에 실제로는 30분가량 걸려서 진땀을 뺐지만, 지난해 첫 대바자회 촬영 때보다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첫 번째 촬영에 나선 약대 황경수(제약 88) 동창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니 숨쉬기도 불편하고 전달이 잘 안 될까 봐 걱정”이라면서도, “연습 동영상을 찍어서 미리 약대의 모든 단체 대화방에



동창들이 직접 나서 물품을 설명하고 판매해 신뢰를 높였다

올려서 홍보를 했어요. 선주문도 많이 받았어요”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사전 홍보 및 판매를 했다고 한다.

### 다수의 방역 및 위생 용품 선보여

코로나19와 미세먼지로 위생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 세정제과 마스크, 살균 티슈 등 위생 용품이 많이 나왔다. 천연 곡물이 들어간 ‘엔자임 곡물 파우더워시’ 세정제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국음악과 김희정(한음 03) 동창과 박형례(한음 07) 동창은, 둘 다 뱃속에 아가를 품은 귀한 몸으로 진행에 나서 눈길을 사로잡았다.

비타민 파우더 마스크팩은 임산부 배에도 바르면 좋다고 권하는 진심이 느껴져, 화면 아래 적힌 주문 전화로 학과, 상품명 및 주문 개수를 입력하여 보냈다. 잠시 후 총동창회에서 ‘학과에 전달하였습니다’라는 답신이 오고, 한국음악과 총무 김희정 동창이 ‘이대 총동창회 대바자회와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멘트와 함

께 입금 계좌를 메시지로 보내왔다.

‘좋은 상품 소개 감사하고요, 예쁜 아가 순산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답신을 보냈더니 ‘인사 꼭 전달할게요. 예정일이 열흘 남았대요’라는 답신이 왔다. 시끌벅적한 장마당에서의 대화는 아니지만, SNS로 오고가는 대화 속에서 이화 선후배의 정을 쌓는 순간이었다.

특수교육과에서는 자폐인 디자이너 정윤석 씨가 진행자로 직접 나서 오토스타 제품을 홍보하였다. “공룡 데이노스쿠스의 모습이 파인애플 껍질과 비슷하게 생겨서 디자인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직접 만든 ‘파인애플 공룡 파우치’를 정성껏 소개했다. “자폐인 중에 시각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정윤석 디자이너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재능이 크다”라고 덧붙이는 이이림(대학원 특교과 재학생) 씨는 밝고 세련된 디자인의 문구류와 소품을 자랑했다. 오토스타는 모교 특수교육과 이소현(특교 83) 교수가 설립하여 자폐인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물리학과에서는 지난해에도 히트한 저자극성 코스모젠 화장품을 특가로 준비했다. 신소영(물리 88) 물리학과 회장은 “1차로 과 동창회에서 사전 판매했는데 완판했어요. 대바자회 기간에만 추가로 전화 주문을 더 받기로 했어요”라며, “작년에는 제품을 받아 일일이 포장해서 보내느라 힘들었는데, 올해는 업체에서 직접 배송하기로 해서 편해졌어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셈이죠”라며 밝게 웃는다.

### 입맛을 돋우는 먹거리들로 풍성한 추석 전야제

온라인 대바자회 장터에는 추석을 앞두고 각종 명절 선물 꾸러미와 건강식품, 의류 및 화장품, 주방 용품, 인테리어 용품은 물론, 연말연시 모임 장소 대여나 성형외과 상품 등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특색 있는 품목이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귀농한 동창들이 정성껏 재배하고 만든 먹거리를 들은 이화 동창 대바자회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자리잡았던 정경아(국문 88) 동창의 ‘지

리산 농부들’ 조청 제품은 작년에 첫선을 보인 품목으로, 서늘한 바람 부는 요맘때쯤 생각나는 반가운 먹거리다. 이정수(가관 73) 동창이 강원도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정수네 농장’의 재래식 된장류도 대바자회 단골 품목이다.

봉화군에서 직접 농원을 운영하는 전경희(물리 71) 동창의 저농약 사과로 만든 사과즙도 눈길을 끌었다. 정세현(물리 92) 동창은 “평소 과 행사나 자연대 야유회에 기부를 많이 해주시는 선배님께 감사하다”며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조소과의 이미자(조소 90) 동창은 직접 운영하는 ‘꽃담 간장계장’을 내놓아 푸짐한 시연 영상을 제공했다.

“올해는 사회학과에서 여주 판매하나요? 작년에 많이 주문했는데 다 먹고 막 떨어졌거든요. 우리 과의 보톡스 마스크팩도 좋은데 여주도 참 좋아요”라고 하며 김진희(약학 86) 동창이 약학과 활영을 마치고 나오다 갑자기 여주 예찬을 늘어놓는다. 대바자회에서 여주를 구입하려고 1년을 기다

The collage consists of 12 separate promotional images arranged in a grid:

- Top Left:** A set of three decorative Christmas trees (20,000원).
- Top Middle:** Two women wearing face masks, one holding a pair of high-heeled shoes (30,000원).
- Top Right:** A coiled cable (10,000원).
- Middle Left:** A woman standing next to a blue banner for 'EASEL 토트백' (195,000원).
- Middle Center:** Three women modeling long, flowing dresses in blue, white, and black.
- Middle Right:** Two blue dresses displayed on hangers.
- Bottom Left:** A collection of colorful tote bags (245,000원 - 310,000원).
- Bottom Center:** Two women modeling long coats or scarves.
- Bottom Right:** A patterned fabric item (15,000원).
- Bottom Left Column:** A banner for '온라인 대비자회' (Online Counter Meeting) and a woman holding a large black bag (35,000원).
- Bottom Center Column:** A woman holding a large black bag (35,000원).
- Bottom Right Column:** Text about the 'Fashion Item & Bag Accessory Line' featuring 'IHEA'.

렸단다.

강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박준호(사회 70) 동창의 농작물이 대바자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는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도 추석 선물로 좋은 보리굴비와 대천김(섬예), 요까 청송사과와 강경 새우젓(영교), 황금향(수교)을 비롯해 인삼제품(가관, 간호, 정외)과 각종 영양제 및 비타민스의 뉴트리미 영양제와 프로틴 제품(식영), 마누카꿀(무용) 등 건강식품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눈을 즐겁게 하는 패션 의류와 가방, 액세서리 소품

다양한 아트 상품도 눈길을 끌었다. 우선 동창의 작품이 프린트된 아트 상품이 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신미선(서양 85) 동창의 서양화 작품이

미지를 베이스로 한 EASEL 토탤백이 눈에 띄었고, 성경말씀을 필사하며 작업하는 박혜성(서양 98) 동장의 작품이 프린팅된 백자 마스크는 요한 복음과 베드로 전후서 두 종류였다. 찬바람 부니 이화여대 패션 브랜드 E:FEEL의 '이대로 스카프'(조형대의 녹미마켓)와, 감성 가득한 캐시미어 롱코트 제품(생미)이 눈에 쏙 들어왔다. 조소과 동창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방(O&Y Leather Craft)의 핸드메이드 가죽공예 제품과 젊은 직장인에게 안성맞춤인 '어페이스트 수제화'(사복)도 맵시를 뽑내며 등장했다. 친환경 오가닉 코튼 아동복 '두루'의 앙증맞은 망토(청주 지회), 바자회에서 빠지면 섭섭한 아나바다 장터는 관현악과에서 열렸다. 연주 드레스에서부터 고급 넥타이, 보조배터리까지 다양한 기부 물품이 펼쳐졌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상품들도 다수 선보였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상품 선보여**  
성악과에서는 방배동에 위치한 멀티 플레이스 '제이아츠' 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했다. 100여 평 홀에서 소규모로 1팀만을 위한 대이닝을 하거나 와인 파티 또는 작은 음악회도 즐길 수 있으며 파티 드레스 대여도 가능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의 소규모 모임에 적당한, 상상만 해도 즐거운 기획이다. 또한 동창 가족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피부 레이저 및 눈 성형 상품이 동창 특가로 준비되어 이목을 끌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친 동창들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아이템도 많았다. 국문과는 이진민(국문 86) 동창이 대표로 있는 아이소이 탄력 크림을 '이화벗님 특별가'로 판매했다. 마스크팩(영문, 약학, 한음, 물리)과 기초화장품 세트(섬예, 2021 올해의 이화인 등)와 중국차 BOCHA의 티백 컬렉션(중문) 등이 차 한 잔의 여유를 제안했다. 영문과는 코로나 인테리어 봄 효과로 반응이 좋았다면 작년에 이어 이건창호의 중문, 마루, 수전 제품을

연속 판매하였으며, 이에 더해 앤틱 가구와 소품까지 품목을 확대하였다.

한편 총동창회에서는 매년 대바자회의 스테디셀러인 저염 백명란 1kg을 준비했는데, 총동창회 최혜정(한음 90) 지역부장이 졸영날 새벽부터 준비한 '명란 계란말이와 명란아보카도 비빔밥' 두 가지 요리를 차려내 화면 너머로 식욕과 구매욕을 자극했다. 이 밖에도 신제품인 'EWAH USB'가 컬러풀한 색상을 뽐내며 첫선을 보였으며, 배꽃 모양의 '석고 방향제'와 '초경량 우양산' 등 네 가지 품목을 판매하였다.

#### SNS나 스토어 이용한 주문 다변화

올해 대바자회는 온라인 장터의 특성상 다양한 주문 방식이 등장했다. 주로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문자폰으로 주문이 이루어졌지만, '허들링 바자'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톡' 등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한 팀도 등장했다.

네이버에 '허들링 바자'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후원하고 싶은 단체 중 이번에 참여한 '2021올해의 이화인'과 '이화여대 생활환경대동창회'를 클릭하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수익금 일부가 접속한 참여 단체에 자동으로 기부되는 방식이다. MCM 가방이 50~80% 할인된 가격에, 천종삼과 마시는 콜라겐(이상 가관), 블랑쉐 화장품 세트(2021올해의 이화인)가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

또한 '2017올해의 이화인'은 네이버 쇼핑을 통해 링크온에 접속한 후 천연 알코올로 만든 살균 티슈를 구매하고 배송 메시지에 '이화 바자회'를 작성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을 택했다. 같은 팀의 '잼있는 뺑'은 카카오톡에 '우연한 디너'를 치고 접속해서, 총명스콘+레몬컵파운드+저당 팔기잼+저당 블루베리잼이 한 세트로 구성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모교의 배윤경(불문 87)·양선희(교육 87) 동창과 총동창회 김곡미(생미 87) 사업부장이 '잼있는 일'을 위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한다. 택배 배송 또는 방금 구운 빵을 선호하면 원하는 날짜에 바로픽업도 가능하다.

#### 동영상 화질과 음향, 편집 업그레이드로 편의성 높여

올해 대바자회 동영상은 화질과 음향 그리고 편집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해 바자회에서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 주문을 놓쳤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는 동영상의 화면 우측과 하단에 박스형 바를 띄워 제품명과 가격 및 주문 전화를 제공했다.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도 상품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래 부분에는 자막으로 진행자의 멘트와 설명 자료 등을 넣어, 제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학과별로 챕터를 구분하고 시간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 미리 받은 목록표



연말연시 모임 장소를 대여하거나(위)  
홈 인테리어 용품 등 특색있는 상품도 등장했다

를 참고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었다.

총동창회 박병희(약학 84) 문화부장은 "작년보다 영상이 훨씬 잘 나와서인지 판매도 잘되는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생활환경대 김상희(가관 81) 회장은 "스태프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촬영에 참여했는데, 대바자회 영상을 통해 보니 진행자가 나와서 설명하는 동영상 방식이 훨씬 이해가 가고 호소력이 있다"라면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대바자회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한 임원진과 동창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하고, "해외에서도 물품 구입은 못하지만 대바자회를 구경하고 싶은 동창들을 위해 동영상을 보내 함께하였다"고 전했다.

총동창회 유튜브 채널에서 3일간 이어진 2021 총동창회 대바자회는, 각 대학(원), 과(학부), 지회 등 30여 곳에서 참여하여 질 좋은 상품을 동창 특가로 제공하고 착한 소비로 호응하며 시공간을 넘어서 정겨운 장터가 되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이배용(사학 69) 동창

## '제5회 반기문 여성권익상' 수상



전 모교 총장 이배용 동창이 8월 16일(월) '제5회 반기문 여성권익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비영리 국제단체인 '아시아 이니셔티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재임 기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기리기 위해 2017년 이 상을 제정했다. 이배용 동창은 모교 총장 재직 당시 '국제교류처'와 '이화학술원'을 설치하고, 세계 명망가를 초청해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여성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지희(경영 85) 동창

## 삼정KPMG 부대표로 승진



서지희 동창이 6월 23일(수) 삼정KPMG의 부대표로 승진했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최초의 여성 부대표이다. 서지희 동창은 30년간 쌓아온 회계감사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2003년 대형 회계법인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되었으며, 사단법인 '위민인이노베이션(WIN)' 회장을 맡아 여성 인재를 지원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명선(법학 85) 동창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취임



7월 30일(금) 장명선 동창이 공모를 통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7월 29일까지 3년이다. 장명선 동창은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자체 평가위원, 서울시성인지예산운영협의체 위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육소영(법학 90) 동창

##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육소영 동창이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육소영 동창은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J.S.D)를 취득했으며, 충남대 로스쿨 원장을 역임하였다.



### 박은정(법학 94) 동창

####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취임

박은정 동창이 6월 25일(금)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임명되었다. 박은정 동창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부장 검사, 인천지검 공판송무부 부장 검사,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을 역임하였다.



### 이재교(통계 94) 동창

#### 넥슨 지주회사 NXC 신임 대표이사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의 브랜드홍보본부장 이재교 동창이 7월 29일(목) NXC의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임되었다. 이 동창은 넥슨컴퍼니에 대한 이해가 높고 NXC의 다양한 의사 결정과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교 동창은 1998년 넥슨 입사 후 넥슨 홍보이사를 거쳐 2012년 지주회사인 NXC로 이동해 사회공헌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이끌어 왔다. 2018년 넥슨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제2 넥슨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도 앞장선 바 있다.



### 채영신(교육 95) 동창

#### '제7회 황산벌청년문학상' 수상

신채영신 동창이 소설『개 다섯 마리의 밤』으로 '제7회 황산벌청년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7월 22일(목) 논산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채 동창은 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 논산시가 주최하고 (주)은행나무출판사와 (주)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황산벌청년문학상은 한국 문단을 이끌 새로운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신승희(법학 99) 동창

####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취임

신승희 동창이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에 취임하였다. 남원지청의 첫 여성 지청장이기도 한 신승희 동창은 전주지검과 광주지검,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부부장, 법무부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 전아영(의학 00) 동창

#### '올해 최고의 의사 닥터 컴웰' 수상

전아영 동창이 '올해 최고의 의사 닥터 컴웰(Dr. Comwel)'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9월 16일(목) 안산병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닥터 컴웰 시상식은 전국 10개의 공단 병원 230여 명의 의사 중에서 인술을 겸비하고, 공공병원 의사로서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의사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여 시상하는 행사다. 전아영 동창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재활의학과장으로, 2015년도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입사해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으로 환자 진료에 열정을 다하여 환자 및 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

## 세월을 머금은 고요하고 경건한 공간

1935년 건축된 중강당은 대강당이 지어지기 전 까지 이화의 대학교회로 사용된 곳이다. 처음엔 대강당이라고 불렸으나 1956년 대강당이 완공되면서 중강당으로 불리고 있다.

화강암으로 지어진 건물, 진갈색 아치형의 대문, 건물 중앙에 조각된 십자가가 단정하면서도 고풍스럽다. 유럽의 골목길을 돌다가 만나는 작은 광장, 거기에 서 있는 소박한 교회를 방문하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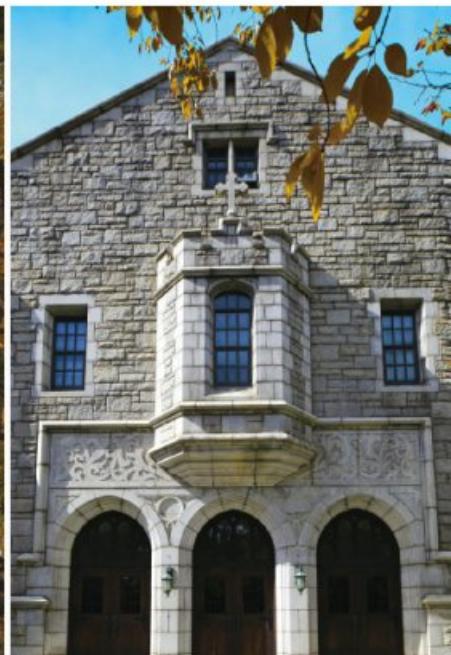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자그마한 로비가 있고 예전에 대학교회로 사용된 아담한 공간이 나타난다.

진회색의 커튼, 자주색 카펫, 그리고 진갈색의 긴

의자들이 세월을 잔뜩 머금은 느낌이다. 미색의 벽면에 적당한 높이로 달린 등경에도 세월의 자취가 잔뜩 묻어 있다. 나무 계단을 오르면 손때 묻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는 것마저 세월의 두께를 보여 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조심스레 밟으며 올라간다. 이 또한 고요하고 경건한 공간이다. 1층의 반 정도 되는 크기,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잠시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는다. 빛도 잘 들지 않는 이 작은 공간이 지친 마음을 포근히 감싸 주는 느낌이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그 흔적마저 소중한 이화의





역사로 자리잡은 중강당. 코로나19로 교내의 많은 공간이 문을 닫기 이전, 중강당에서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에 교직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이화의 한 해를 돌보심을 감사드리는 정기 예배를 올리곤 했다.

중강당이 문을 활짝 여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이 작은 공간에 거하는 동안, 주의 사랑을 느끼며,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 것 같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사진·황규호(이대 교육학과 교수)



**만나고 싶었습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김혜순 동창

## 반세기에 걸친 지극한 매듭 사랑



**“매듭은 내 인생에  
소중한 인연 선물해 준  
고마운 존재”**

지난 6~7월 MBC 예능 <놀면 뭐하니> 'MSG워너비' 편에서 유재석(유야호 역)의 머리장식 매듭을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져 방송과 SNS를 뜨겁게 달궜던 매듭장 김혜순(섬예 66) 동창. 50여 년간 매듭과 인생을 함께한 김 동창을 만나러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매듭장 공방을 찾았다.

공방 안에는 은은한 절제미를 풍기는 고운 색감의 매듭 작품들과 갖가지 매듭 도구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실을 합해 끈을 짜는 도구인 끈틀. 여러 개의 토짝이 매달린 원뿔 모양의 끈틀은 끈으로 매듭을 짓는 것만이 매듭 공예의 전부가 아님을, 하나의 매듭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함을 말해 주는 듯했다.

### 명주실로 맺어진 매듭과의 인연

예부터 예의와 격을 상징하는 장식으로 쓰여온 매듭. 매듭 제작은 작품 구상과 함께 작품에 들어갈 명주실을 염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름다운 색으로 물든 명주실은 해사와 합사 과정을 거쳐 끈틀에 앉혀진다. 끈을 짜기 위해서다. 3미터 끈을 짜는 데 꼬박 하루이틀이 걸린다.

그 끈으로 매듭을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전통매듭은 길게 늘어뜨리는 술까지 장식해야 완성 품이 된다. 끈으로 맺은 매듭과 술이 갖가지 색으로 조화를 이룬 결정체, 온전히 장인의 손길로 빚어낸 정성과 인고의 예술, 그것이 바로 매듭이다.

모교 미술대학 자수과(현 섬유예술과)에서 현대 자수를 전공한 김 동창은 결혼과 함께 자연스럽게 매듭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 중개자는 바로 시누이이자 매듭 명예보유자인 김희진(87세) 매듭 장. 매듭 기본형 38가지와 술 기법을 정리해 복원한 김희진 매듭장은 1976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

22호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고, 1979년 한국매듭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낸 인물로 2013년에는 명예보유자가 되었다.

“소재가 똑같은 명주실이라는 점에서 현대자수와 매듭은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매듭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별 부담 없이 받아들 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 시누님과 한집에서 살았는데, 그때 당신이 작업하시면서 명주실이나 끈을 가지고 제 방에 오셔서는 실의 색감이 어떠냐, 매듭짓는 것 좀 해보지 않겠느냐고 의논하고 권하기도 하셨어요.” 그때가 1971년의 일이다.

그 후 김 동창은 한국매듭연구회 창립 멤버로 참여하며 스승의 매듭 솜씨를 고스란히 물려받기 시작했다. 1980년부터는 김희진 매듭장 조교로 전수 교육에 항상 동행하며 매듭 이수자, 전승 교육사 과정을 차례로 거쳤다. 매듭의 기능을 배우고 익히며 후학 양성에 공을 들인 끝에 2017년에는 스승과 똑같이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매듭은 곧잘 인연에 비유되곤 한다. 그 비유는 반세기 넘게 오로지 매듭에 빠져 살아온 김 동창에게도 해당한다. “매듭은 저에게 여러 가지 소중한 인연을 선물해 줬어요. 문화계의 홀륭한 선생님들, 매듭을 사랑하는 다재다능한 제자들도 많이 만나게 해줬죠. 덕분에 아주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 매듭의 현대화 위해 매듭과 자수 접목 시도

김 동창은 지금까지도 한국매듭연구회 강의를 비롯해 수많은 전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매듭 강의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부여) 매듭 강의, 그



매듭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김혜순 동창

리고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학예사와 박물관 종사자들 대상의 ‘교육문화유산 전문가 연수’도 진행했다. 그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직접 해외에 파견되어 매듭 공예 전시와 함께 워크숍을 이끌기도 했다.

매듭을 정식으로 배우려면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3년간 기초반·연구반·전문반 코스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3년은 기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제대로 작품을 완성해 내는 예술가가 되려면 졸업 후 더 많은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김 동창이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개강 첫 시간에 꼭 하는 얘기가 있다.

“이곳은 매듭을 취미로 할 사람이 아니라 매듭 공예가를 키우는 곳입니다. 적당히 배워서 취미로 하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심하고 깬깐한 강의를 미리 예고해야 학생들이 더 열의를 가지고 배우리라는 생각에서다.

### 국내 최초로 프랑스 성지에 자수 성화 봉헌

수많은 작품활동을 해온 김 동창이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은 2003년 세계적 성모 발현지 프랑스 루르드 성지에 있는 무염시태성모(원죄 없이

임태되신 성모) 성당에 한국을 대표하는 자수 성화를 봉헌했던 일이다. 작품명은 ‘한국의 성모자상’. 고운 한복을 입은 한국의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화에 수를 놓고 매듭을 지은 다음 술을 달아 장식했다. “프랑스 성지에 봉헌된 한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성화여서 더 뜻깊었고 루르드를 몇 번씩 오가며 1년 3개월 걸려 완성해 놓고 보니 정말 뿌듯했다”는 김 동창은 “매듭뿐만 아니라 수 까지 놓을 수 있었던 것은 현대자수를 전공했던 덕분이었다”며 “이화에서 자수를 공부한 것에 새삼 감사하게 되더라고”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화를 졸업한 지 55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모교에 감사한 것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준 것이다.

“우리 과는 아무래도 실기 시간이 길었어요. 인원이 많지는 않아도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같이 했기 때문에 우정이 아주 깊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 모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어김 없이 모여서 여행도 다니고, 서로 살뜰하게 챙겨요. 그런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김혜순 동창은 처음부터 매듭과 현대자수를 접 목시켜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김희진 명예보유자도 “나는 전통을 계속할 테니 자네가 현대화를 좀 맡아서 해보라”며 권유했다. 전통매듭만을 고집하지 않고 매듭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던 김 동창은 첫 개인전 ‘또 하나의 연(緣)-매듭자수전(2005)’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

자수로 표현한 바탕 위에 매듭의 입체미를 곁들인 〈옛날 옛적에〉와 〈환희〉 등 현대적 창작품이 바로 그것. 한땀 한땀 정성이 들어간 자수와 끈으로 엮은 매듭의 만남을 통해 회화적 표현을 시도하고 싶었다는 김혜순 동창은 관람객들이 의외로



오시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전통공예 매듭전〉 관련 이벤트  
‘한국전통공예 워크숍’에서 교육 중인 김혜순 동창(2017)



MBC 〈놀면 뭐하니〉 100회 특집 방송(2021. 7. 17) 스페셜 무대를  
장식한 김 동창의 대형 잡자리매듭

현대적인 작품을 좋아해 줘서 기뻤다고 회고한다.

### 〈놀면 뭐하니〉와의 뜻밖의 만남

한국 매듭의 매력에 대해 김 동창은 매듭의 38 가지 기본형을 활용해 무궁무진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그런 점에서 매듭은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색상과 문양을 서로 조합해 구성하다 보면 의상, 실내 장식, 더 나아가 무대 장식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놀면 뭐하니〉 100회 특집 방송(7월 17일) 스페셜 무대를 장식한 대형 매듭 장식도 김 동창의 작품이라는 것은 방송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놀면 뭐하니〉와의 뜻밖의 만남에 대해 김 동창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남자 머리에 매달 매듭 제

작 의뢰가 왔어요. 처음에는 왜 남자가 머리에 매듭을 다느냐며 반대했어요. 부채 끝에 달거나 한복 허리띠로 매듭을 하면 모를까, 머리에 다는 것은 제 고정관념으로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가만 생각해 보니 지금 시대에는 맞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더구나 방송 콘셉트라는데 내가 안 해주면 제대로 된 한국 전통 매듭을 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의뢰를 수락했죠.”

김 동창은 올봄 내내 강의로 바쁜 와중에도 팔찌와 머리장식을 만드는 일로 무척 분주하고 힘겹게 보냈다. 그하면서도 무료로 제작해 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손사래를 치며 “작품에 어떻게 값을 매기겠어요. 방송국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다, 방송을 계기로 젊은이들도 전통매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 그걸로 된 거죠. 대중에게 매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여 준 기회가 된 것이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라고 답한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전통의 가치. 김 동창은 그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이렇게 곳곳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 동창은 요즘 77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8월 19일(목)에는 한국문화재재단과 네이버가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 쇼 <박경림의 사는 의미>에도 출연했다. 공예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찾아가 작업장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생방송 동안 요즘 ‘핫하다’는 라이브 커머스(네이버 라이브 쇼핑)가 동시에 진행됐다.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유명한 김 동창의 걸작들을 구매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래서였을까 실시간 참여자 수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카메라와 마이크,

조명 등을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하느라 공방이 시끌벅적했다”고 말하는 김 동창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 절제와 겸손이라는 인생의 매듭을 위해

앞으로 김 동창은 그간 회원전을 통해 발표했던 작품들을 모아 선보이는 개인전과 매듭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책 출간을 구상 중이다. 개인적인 계획 외에 굵직굵직한 공식 일정도 잡혀 있다. 오는 11월 17일(수)부터 26일(금)까지 제30회 한국매듭연구회 회원전이 계획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같은 11월에 국립무형유산원(전주)에서 열리는 무형문화재 장인의 작업 무용극 ‘2021 국립무형유산원 브랜드 공연’에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처음 시도하는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노래>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로 색다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동창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핵심 덕목은 절제와 겸손이라고 강조한다.

“절제된 생활의 멋과 욕심부리지 않는 겸손의 미를 추구했던 옛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아 꾸준히 노력하는 생활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없어야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고 그래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지요.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덕분인지 지금까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할 뿐이죠.”

50여 년을 한결같이 단아하고 참한 매듭의 매력에 빠져 살아온 김 동창의 마지막 말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오랜 세월 결코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Gallery ROYAL

## 욕실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껴”

로얄앤컴퍼니의 서울 사옥 ‘로얄라운지’를 방문하던 날, 약 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는 망설임도 잠시, 입구에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쇼룸으로 발길이 옮겨졌다. 아무리 욕실 인테리어가 대세라지만, 이렇게나 멋지고 개성 넘치게 욕실을 꾸밀 수 있다니 그야말로 신세계가 따로 없었다. 실제 집처럼 테마별로 꾸며 놓은 예닐곱 가지 욕실 디자인 코너에서부터 갖 가지 모양의 수전과 세면대, 독특한 재질과 색을 가진 타일 코너, 아기자기한 욕실용품까지… 게다가 쇼룸 한쪽에 위치한 갤러리 로얄에서는 금속공예를 전공한 이주현 작가의 개인전 ‘meet 이주현’이 열리고 있어 이곳에 하루종일 머물러도 지루할 새가 없을 듯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본사가 있는 화성 센터에는 로얄앤컴퍼니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를 담은 또 하나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로얄엑스(ROYAL X)’가 있다. 얼마 전 오픈한 로얄엑스에는 욕실 디자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카페와 아트숍, 현대미술 갤러리, 화성시와의 협업으로 마련된 미디어랩, 욕실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10만m<sup>2</sup>(3만 평) 공간에 들어차 있다.

### 고객과의 소통 위해 문화사업에 투자

욕실전문기업 로얄앤컴퍼니에서 문화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영(커미부 87) 동창은 서울 사옥 로얄라운지에 자리잡은 갤러리 로얄의 관장이자 화성 본사에 마련된 복합문화공간 로얄엑스의 갤러리와 스튜디오 등 로얄앤컴퍼니의 문화사업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다.

‘물과 사람의 행복한 만남.’ 욕실 문화를 위해 일하는 로얄앤컴퍼니의 슬로건이다. 단순히 씻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만족까지 제공하는 욕실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로얄앤컴퍼니는 욕실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던 1970년대 김 동창의 시부인 신문기자 출신 박신규 회장이 창업한 로얄금속기업사의 후신이다. 1980년 일본 ‘동도기기(TOTO)’와 기술제휴로 합작 생산을 하면서 ‘로얄TOTO’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1986년 평사원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경영 수업을 밟아오던 김 동창의 남편 박종옥 대표이사가 1999년부터 2세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이끌게 된다. 그후 2009년 동도기기에서 독립해 로얄앤컴퍼니로 사명을 바꾸고 수전과 도기 등 욕실용품 개발뿐 아니라, 욕실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 욕실 ‘로얄컴바스’를 출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해 갔다.

2014년에는 본사와 공장을 경기 화성으로 이전해 생산, 물류, 기술개발, 문화복지 등을 아우른 ‘화성센터’를 마련하고, 2018년 업계 최초로 욕실용품 전문 아웃렛을 열었다. 회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화성센터의 연구동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로얄앤컴퍼니의 51년 브랜드 스토리가 집약된 이색 욕실 문화예술 체험공간 ‘로얄엑스’를 지난 5월 27일(목) 공개했다.

김 동창은 “금속 수전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 이만큼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평소 알뜰함과 겸소함을 강조했던 올곧은 성격의 시 아버님이 물려주신 기업문화 덕분”이라며 “그런 유전자가 남편과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 동창이 문화사업부를 맡게 된 것은 2006년 무렵, 로얄앤컴퍼니가 논현동에 7층 규모의 로얄

라운지를 마련하고 쇼룸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시설과 갤러리 로얄을 오픈하면서부터다. 복합문화 공간은 당시 B2B(기업 대 기업)에서 B2C(기업 대 소비자) 비즈니스로 새롭게 사업방향을 확장하며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고심하던 박 대표와 임원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로얄라운지를 구성하고 꾸밀 때 섬세하고 꼼꼼한 손길이 필요해 문화사업부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는 김 동창은 “제조업도 이제는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문화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더 바람직한 홍보라는 남편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힘주어 말한다.

#### 예술 작품의 새로운 쓰임을 제안하다

로얄앤컴퍼니의 심벌인 빨간색 ‘R’이 커다랗게 박힌 유리 큐브 모양의 로얄라운지는 강남구가 공모한 아름다운 건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멋스러운 외관만큼 내부도 짜임새 있게 꾸며져 있다. 1층에는 갤러리 로얄과バス 관련 용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쇼룸이, 2층과 3층에는 브런치 카페와 이탈리안 정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과 와인바가 들어서 있다. 야외 테라스와 연결된 6층 렉처홀에서는 예술과 인문, 인테리어, 리빙 관련 강의가 진행된다.

“갤러리와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 맨땅에 해당하는 심정으로 미술 공부부터 시작했다”는 김 동창은 “내가 필요해서 공부하다 보니 의외로 배우는 대로 뭐든지 흡수하게 되더라”며 문화사업 담당자로서 첫걸음을 떼던 당시를 회고한다.

처음에 미술사,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 컨템포러리 아트 등 미술 관련 수업과 공간 인테리어 수업으로 시작한 아카데미는 그동안 알찬 강의가 되



화성 센터에 마련된 육실 컨셉 카페, 로일엑스클럽

도록 끊임없이 강사를 발굴하고 섭외하는 등 정성을 쏟아부은 덕분에 지금은 독서클럽, 라운지톡(토크쇼)으로까지 장르를 확대했고 커리큘럼과 강사진이 웬만한 대학 수업에 뒤지지 않는다.

갤러리 로얄 역시 전시할 만한 공간이 딱히 없는 강남의 도심 한복판에 감성 충만한 예술작품을 통해 명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실력이 있는 데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꾸준히 발굴해 전시를 열면서 전시공간뿐 아니라 도록 제작, 전시 홍보 등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1년에 4~5차례씩 꾸준히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전시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어떻게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지, 관객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도록 할지 등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김 동창의 말은 15년간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며 터득한 경험적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7월에 있었던 ‘차 마시는 공간을 한가로이 산책하는 마음’이라는 뜻의 ‘차관소요(茶館逍遙)’ 전(展)은 갤러리 로얄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총 집약된 전시였다. 한 공간에 도기 공예 작품인

다기부터 탕관, 화기와 접시, 목공예 작품인 테이블과 의자에 이르기까지 9명 작가의 작품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차 생활을 제시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동창은 ‘차관소요’ 전을 열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설치, 페인팅, 공예 등을 아우르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전시를 시도해 로얄앤컴퍼니가 생각하는 문화와 예술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차를 마실 때 객식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힐링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었잖아요.”

김 동창이 다른 무엇보다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로얄라운지에서 진행한 여러 작가들의 협업 전시나 플레이팅 등의 아카데미가 사람들에게 예술작품의 새로운 쓰임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김 동창은 이런 제안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는 말에 방점을 찍는다. 아카데미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좋은 작가 및 강사들과의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온 김 동창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 물과 욕실에 대한 철학이 담긴 로얄엑스

로얄엑스의 특별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동창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과 욕실에 대한 생각을 함축적으로 녹여 놓은 공간”이라며 “도장 찍듯이 똑같은 타일, 똑같은 도기, 똑같은 수전이 아니라 나만의 욕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해 보자는 생각으로 탄생한 로얄엑스를 통해 기존 욕실 문화의 판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몇 년 전부터 리뉴얼 공사에 들어갔던 화성센터의 모든 공간이 올해 순차적으로 오픈되고 있다. 제일 먼저 화성 센터 교육동을 리뉴얼한 전시공간 갤러리와 스튜디오(R2동 4층)를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설치미술, 콘서트, 연극, 퍼포먼스, 건축 전시회 등이 열린다. 현재 화성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천경우 작가의 ‘Place of Place’라는 공공미술 전시가 진행 중이다.

그 건물 지하1층~지상 2층에는 ‘욕실 콘셉트의 카페’와 아트숍이 있는 클럽 라운지 앤 베이커리가 있다. 카페에는 수도꼭지가 일렬로 연결된 학교 수돗가, 민트색 타일의 대중목욕탕, 핑크와 오렌지색의 파우더룸 등이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다. 곳곳에 대형 비누, 두루마리 휴지, 대형 칫솔, 욕실의자로 욕실 문화의 포인트를 준 것도 눈에 띈다.

화성 공장에서 만든 제품과 작가들과 협업한 작품들, 거기에 기업의 가치관과 철학을 스토리텔링 해 곳곳에 글로 남김으로써 욕실 카페를 찾은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콘셉트가 완성되었다.

화성문화재단과 협업하는 공간인 ‘Act 그라운드-미디어 랩 & 메이커 스페이스’(R5동)에도 불거리가 풍성하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3D프린터

등 첨단 제조 장비를 갖추고 작가와 소상공인 등 일반인에게 기술과 제작 공간, 영업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며, 미디어 랩에서는 매 시즌 새로운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린다. 민관의 협업은 화성시와 회사 모두 원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화성센터 입구에는 색다른 매력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1,600평 규모의 정원 ‘엑스(X)파크’도 조성했다. 직접 씨를 뿌리고 꽃과 나무를 심어 플라워 필드 산책로, 파운틴 테라스, 갤러리 가든, 피크닉 라운지 등으로 꾸며 계절마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형 카페와 기존의 바스아웃렛을 자연스럽게 연결, 확장한 공간인 플래그십 스토어(R5동)를 9월 중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상담할 수 있다.

독특하게도 화성 센터의 각 공간은 별개가 아닌 입체적인 설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높이가 다른 건물 R2와 R5 사이에는 연결 브릿지가 놓여 있다. 갤러리에서 전시를 보고 카페와 아트숍에 갔다가 구름다리를 건너면 자연스럽게 R5 건물의 ‘메이커 스페이스’와 ‘미디어 랩’, ‘플래그십 스토어’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금 로얄엑스라는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 좋은 콘텐츠를 담을 수 있었던 근거는 갤러리와 스튜디오,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경험과 훌륭한 작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었다”고 소회하는 김동창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작가든, 작품이든, 고객이든 정직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려는 자세가 지금의 저를 있게 했다”는 진심어린 고백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 봉사의 대물림 실천한 할머니와 손녀

지난봄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2021 올해의 이화인' 특수교육과 대표로 추대된 전혜인(특교 91) 동창은 이화학당을 나온 친할머니 고 김복희(金福熙, 1901~1987, 유치원 사범과 1921) 동창을 회상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복희 동창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이화학당에서 수학했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옥살이를 한 독립운동가였으며, 소설『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의 뒤를 이어 20여 년간 농촌 계몽운동과 유아교육에 헌신한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동안 동창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화의 독립운동가 한 분의 삶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손녀딸인 전혜인 동창을 만나 자랑스러운 이화의 선배 김복희 동창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김복희 동창의 생전 모습

### 이화학당 입학과 백암리 만세운동

김복희 동창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에 대통령 표창 독립운동가로 추서되었다. 이화학당 고등과 3학년 재학 중인 1919년 3월에 충남 아산시 '백암리 횃불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는데 10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조명된 것이다. 전혜인 동창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려면 1년 이상 옥살이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2개월 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셨어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조명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1년 미만의 기결수라도 증빙이 확실하면 독립유공자로 추서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이책이 증거물로 큰 역할을 했어요"라면서 기록물을 보파리를 풀어낸다.

김 동창의 맏며느리이자 전 동창의 어머니가

편찬한 회고록『우리 어머니 김복희 장로의 일생』(김광신 저, 1980)이다. 김 동창이 80세 되던 해를 기념해 정리한 기록이라고 한다. 만세운동의 주도자로서 김 동창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이 회고록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만세운동 연구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다. 사진 자료들도 책에 충실히 담아내 할머니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가족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김복희 동창은 일찍이 고향의 감리교 백암교회 부설 영신보통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선교사를 하던 미국인 사애리시(史愛理施, Alice Hammond Sharp)가 이화학당 교비생으로 추천해, 이화학당 보통과 4학년(초등과정)에 편입했다.

"이화학당에 입학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랑하는 딸을 멀리 보내길 꺼려 하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진학할 수 있지 않을까 궁리도 해보고 매일같이 매달려 졸라대어’, 결국 아버지가 재혼하고 이듬해 봄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전혜인 동창은 말한다.

소녀 김복희는 혼자 상경해 서울역에 도착했다. 나와 있기로 약속한 이화학당 사감 선생님이 안 보여서 당황스러웠는데 인력거꾼에게 부탁했던 이화학당 앞에 내려다 주었다고 한다. 이때 기숙사에 도착해 처음 만난 사람이 유관순 열사의 사촌 언니 유예도(1896~1989) 동창이었다. 고향이라고 매우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 기숙사에서 한 방에 지내 절친한 사이였고, 만세운동으로 옥살이도 함께했던 인연이 있다고 회고한다.

김 동창은 보통과를 마치고 이화학당 고등과에 진학하였다. 졸업반이던 해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유관순은 2년 후배로, 1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학생 300여 명이 교문 밖으

로 나가려고 출지어 섰는데, 미스 프라이 교장 선생님이 교문에서 학생들을 막아섰습니다. 담을 넘은 많은 학생들이 현병에게 잡혀갔고, 선생님들이 종로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총독부 휴교령으로 말미암아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김복희 동창은 고향에 내려가 친하게 지내던 영신학교 교사 한연순을 만나 만세운동을 추진하고 동네 유지들과 모의하였다. 3월 31일 밤, 마을 주민 50여 명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방화산 꼭대기에 모여 횃불을 들고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당시 여자는 한 선생과 둘뿐이었고, 한밤중 현병대를 피해 도망가다 낭떠러지에서 굴러 얼굴을 다친 김 동창은 평생 얼굴에 흉터를 얻었다. 치료받던 중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개월 형을 선고받고 공주 감옥에 수감되어 복역했다(미결수로 있던 기간까지 합하면 4개월여 옥살이하였다).

김복희 동창은 출옥 후 국내 상황을 상세히 담은 편지를 외국에 보내 만세운동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미국 《신한민보》 1919년 9월 25일자에 실린 <출옥 후에 발한 어떤 여학생의 편지>가 그것이다(‘공주 감옥에 소위 소요 사건으로 들어온 여자가 10명이었는데, 2명은 서울로 호송하여 경성으로 갔고(그 가운데 한 명이 유관순), 남자는 부지기수였습니다…징역군의 옷을 입히고 일을 시키는데 모두 공장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더니다. 이번 사건으로 들어간 여자들은 삼을 삼는 일을 시켜서 삼을 삼다가 나왔나이다. 음식은 짐승 먹이는 것도 같이하여 주는데 기가 막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생전에 당해 보지 못한 별별 고생을 다 당해 보았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전혜인 동창은 “서울 만세운동 이후 고향으로



유관순(가운데) 열사 오른쪽이 김복희 동창(1917~1918년경 추정)

내려간 이화학당 학생들이 각 지방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것이 회고록에 잘 드러나 있어요. 할머니가 더욱 존경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옥고가 끝난 후에도 외부에 만세운동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셨고, 졸업 후에는 이화에서 배운 유아교육과 농촌 계몽운동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하셨다는 점이에요”라며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다.

김복희 동창은 출옥 후 1919년 고등과를 졸업, 이화학당 유치원 사범과(대학 과정)에 입학하여 1921년에 졸업하였다. 사애리시 선교사의 부름으로 졸업 후 몇 년간 결혼 생각이 없이 유치원을 돌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1925년 전재풍 목사와 결혼했다.

#### 결혼과 함께 샘골마을 천곡교회 강습소 부임

결혼한 김 동창은 남편의 목회지인 강원도로 이주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 유치원 및 탁아소를 설립하여 교육 활동을 펼쳤다. 그러다 1934년 경기도 화성군 샘골 마을 천곡(샘골)교회로 오게 되었다. 이곳은 농촌 계몽운동의 선구자이자 심훈의 장편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1909~1935, 소설 속 이름은 채영신)이 활동한 곳이다. “샘골 마을 강습소는 최용신 선생이 1931년에 설립하여 운영해 왔어요. 일본으로 유학 가게 되어 교사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마침 목사님 부인이 이화학당에서 교육받은 여성이라 강습소를 맡아 할 수 있다는 점이 할아버지를 목사님으로 초빙한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때 샘골로 이동하지 않았으면 강원도 북한 치하에 남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옥 후 《신한민보》(1919.9.25)에 게재한 편지

김복희 동창과 가족은 이후 20여 년 동안 샘골 마을에 살면서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하였다. 김복희 동창은 최용신 선생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과, 일본에서 병을 얻어 6개월 만에 돌아와 요양하는 동안 ‘서로 깊은 대화도 나누며 열심히 강습소의 일을 보았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전 동창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유언에 따라 강습소가 보이는 맞은편에 모셨고 그 뜻을 이어 오랫동안 강습소를 맡아 운영하셨지요. 45년 목회 생활 중 20년을 있었던 곳이라 가족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묘소도 그곳에 만들었습니다”라며 가족들에게 특별한 곳임을 전한다. 민족의식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고 강습소를 폐쇄하려 하였는데, 재판을 한 끝에 승소하여 강습소를 지켜내기도 하였다. 후일 김복희 동창은 샘골 마을과 천곡 강습소를 농촌의 이상적인 모델로 만들고, 일제에 맞서 강습소를 지킨 공으로 1954년에 사회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자손들은 직접 거름통(똥지게)도 나르며 농사지어 생활비를 보탰던 어머니 김복희를 기억한다.

목회를 돋는 일과 강습소 일 두 가지를 다 해내 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이렇게 헌신한 데 대해 김복희 동창은 ‘시골에서 태어나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던 저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못 배운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 일을 계을리할 수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천곡에서의 활동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은 은퇴할 나이인 65세, 김복희 동창은 인천의 승의교회에서 새로이 유치원을 만들어 15년간을 원장으로 재직하며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유치원 설립 당시 졸업 증명서가 필요해 오래간만에 이화학당에 찾아갔는데 6·25 때 기록이 소실되어 발급이 어렵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보여 주고 당시 학장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기도 하며 졸업증서를 받아오셨다고 해요. 다음으로 이화여대에 갔는데 동창생 이름을 대며 아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같이 졸업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그분도 얼마 전에 유치원을 설립한다고 증명서를 떼어갔다면서 어려움 없이 증명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라고 에피소드를 말한다.

'나이 들어서도 이화학당 출신들이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러웠다'고 회고한다.

### 봉사의 대물림을 이루다

"할머니는 날마다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맏아들이어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위로 오빠 셋이 한방을 쓰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와 같은 방을 써서 할머니의 기도 레퍼토리를 만날 들었지요(웃음). 처음에는 항상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샘골 마을 천곡 교회에 대한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옥중에 있는 수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던 것이 독특하게 느껴졌는데 아마 할머니가 옥살이의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시간 기도를 하시면 제일 끄트머리에 자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지요"라고 전혜인 동창은 전한다.

"열아홉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실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할머니 생각을 하게 되요. 제 딸도 진로 문제로 고민스러울 때 할머니가 옥살이로 고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힘을 낸다고 합니다"라는 전 동창은 딸(박소연)이 현재 모교 과학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이화와의 연을 드러낸다.

"할머니는 옳다고 생각하면 지체없이 실행하는 분이셨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한 번도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온화한 분이셨지요. 평소 자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을 담아 「나의 사랑하는 여섯 남매에게」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어요. 아버지도 이런 교육의 영향으로 남을 섬기기 위해 의사가 되셨고, 인천의 병원장을 은퇴하시고 막내인 제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염원하던 몽골 의료선교를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본인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었던 일은 몽



1921년 이화학당 시범과 졸업사진. 앞줄 가운데가 김복희 동창

골에서의 의료선교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당시는 초창기라 거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과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2001년도 방송된 KBS 한민족 리포트 <몽골에 희망을 심는 한인의사 전의철>편에 자세히 소개되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지셔서 귀국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

이어 전 동창은 “저희 집안은 봉사가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공휴일이면 장애인 시설에 데리고 가서 무료 진료를 해주시며 함께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평소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 기특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당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왔다는 동기들이 많아 오히려 의아했었지요. 이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가 많이 기뻐하셨는데, 입학은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라며 아쉬움을 전한다.

전혜인 동창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진양대 초등특수교육과에서 연구와 지도를 하는 한편, 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학교를 만들어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 처음 교회에 장애인 부서를 만들었을 때는 전 동창이 설교와 성경 공부, 간식을 도맡아 했다. 2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 명 정도가 되어 규모도 커지고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동 부서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며 뿌듯해 하는 전 동창에게서 할머니의 뜻을 잊고자 하는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1만 5,000여 명이고 그중 여성은 2%인 350여 명에 불과하다(모교 출신은 24명으로 알려져



이화학당 유치원 사범과 졸업증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있다). 최근 김복희 동창에 대해 연구와 조명이 활발히 되고 있다. 독립영화 <지사 김복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얼마 전까지 이화여고 이화박물관에서 열린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 특별전 '유관순과 이화의 독립운동가들' (2020.11.17. ~ 2021.3.31.)에는 이화학당 출신의 독립운동가 32인 중 한 명으로 김 동창이 전시된 바 있다. 앞서 2019년에는 모교 이화역사관에서 있었던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이화의 독립운동가들'에서 는 학창 시절의 유관순 열사와 김복희 동창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하였다. 자료를 제공하며 협조하고 있는 전혜인 동창은, “만세운동 이후에도 일제 치하에서 농촌 계몽운동가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지속적으로 헌신해온 할머니의 업적이 더 연구되고 조명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힌다. 이화의 기독교 정신과 봉사와 나눔의 귀한 전통이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돌이켜 보면, 이화 보통학교 4학년으로 시작하여 이화여자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이화여자 전문학교 보육과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김복희 동창의 회고록에서)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네 딸 모두 이화를 졸업시킨 부모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말, 총동창회 앞으로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조숙자(성악 65) 동창. 모교 이화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편지에는 조 동창 본인을 포함해 네 자매 모두 자랑스러운 이화에서 교육받도록 물심양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조하진(1996년 작고) 장로와 어머니 변봉온(2008년 작고) 권사, 특히 어머니의 수고를 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문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에 가게 되면 이 한복을 입고 대강당에서 특송을 하고 싶다는 조 동창

편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은 조 동창과 그 아래 세 명의 여동생까지 모두 이화 출신이라는 사실이었다. 먹고사는 일이 고단했던 시절, 딸넷을 모두 이화에 보내 엘리트 여성으로 키워냈다는 것은 조 동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감사 패를 드려 그 공을 기리고 싶을 만큼’ 감사하고 장한 일이었다.

### 이화에서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건

#### 어머니의 헌신 덕분

조 동창의 부모님이 한국전쟁 통에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부산 피난 시절, 국제시장에 큰불이 나 어머니가 하시던 옷가게가 모두 잿더미가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지만, 몇 푼 되지 않은 공무원 월급으로 4녀 2남 6남매를 공부시키자니 어머니는 50~60대 무렵까지 장사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6명의 자녀에게 저마다의 소질을 찾아 길러 주고 펼쳐 나가도록 이끌어 준 그 부모님의 가치관과 인품에 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86세에 미국에서 작고한 조 동창의 어머니는 세상을 뜨기 전 4년 동안 마지막 여생을 맏딸 조 동창과 함께 보냈다. 한국에 계시던 어머니를 조 동창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 보살펴 드렸던 것. 내후년이면 80세가 되는 조 동창은 어머니의 나이가 되고 보니 자식을 위해 자신의 한몸 아낌 없이 던진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런 간절함이 담긴 편지에서 조 동창은 “부모님의 수고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지만, 저는 특히 딸넷을 모두 차례대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시킨 어머니의 수고를 그냥 넘기고 세상을 하직할 수 없고…(생략) 부모님의 고마움을 이

렇게밖에 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 대강당에 울려 퍼지던 오르간 반주 소리

몇 차례 편지가 오간 후 어렵사리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조 동창은 자신의 못다 한 이야기를 봇물 터지듯 풀어놨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1961년 모교 성악과에 입학해 1965년에 졸업한 조 동창은 결혼한 지 10년 만인 1977년 고국을 떠난 이래 지금까지 이국땅에서 살고 있다. 2남 1녀의 자녀들을 이끌고 조 동창네 다섯 식구가 밟은 첫 이민지는 파라과이. 그곳에서 6년을 지낸 후 1983년 다시 브라질로 터전을 옮겨 17년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조 동창의 자녀와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다.

조 동창은 “내가 먼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동생들을 다 불러들인다고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미국으로 오게 된 셈”이라며 “남편이 세상을 끈 후 혼자 8년 더 브라질에서 살다 보니 외로움이 점점 깊어졌고, 형제자매가 있는 미국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제도 막냇동생 생일이어서 동생 식구들과 조카들,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생일파티를 했다”고 소개한다. 먼 타국에서 살려면 뭐니 뭐니 해도 살붙이가 최고다.

첫 편지에서 “살아생전에 모교 대강당에서 오르간을 쳐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밝히기도 한 조 동창은 성악을 전공했지만, 사실 부산 피난 시절에도 피아노를 배울 정도로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조 동창은 채플 시간 대



1965년 음악대학 4학년 때 찍은 사진

강당에 울려 퍼지던 오르간 반주 소리와 피아노과 광은수 교수님의 오르간 연주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마음속 깊이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대강당에서 오르간을 한번 연주해 봤으면’이라는 오르간 연주자로서의 소망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해도 따로 배우지 않으면 선뜻 연주할 수 없을 만큼 피아노와 오르간의 연주법이 다르다.

운 좋게도 브라질에 살면서 오르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미국인 교수에게 정식으로 오르간 반주를 사사하고 발표회까지 열며 지금까지 갈보리믿음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로 봉사하고 있다.

###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네 자매

만이었던 조 동창이 졸업한 후에야 동생들이 모교를 다녔기에 아쉽게도 네 자매가 이화 교정에서 함께한 추억은 거의 없다. 조숙자 동창 바로 아래, 세 살 터울의 둘째 동생 조경실 동창은 모교 미술대학 자수과(현 섬유예술과)를, 그 아래 셋째 동생 조경실 동창은 체육대학 무용과를 1970년 같은 해에 졸업했다.

모교 재학 당시 폐가 안 좋았던 둘째 동생 조경실 동창은 2년간 휴학했다가 복학 후 기숙사 생활 까지 해가며 무사히 졸업장을 손에 쥐었지만, 안타깝게도 졸업 후 2년여 만에 폐렴이 악화되어 그

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던 셋째 동생도 4년 전 신장병으로 저세상으로 갔다.

현재 세 여동생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냇동생 조만실 동창은 1972년 문리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음악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원에 입학했다. 그 후 언니 조숙자 동창보다 먼저 미국에 정착해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하며 음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어릴 적부터 악기를 잘 다루며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네 자매는 이처럼 음악으로, 무용으로, 자수로 절마다의 끼를 살려 모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도 즐겁고 보람찬 여생을 살아왔다. 이 또한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브라질에서는 교회 오르간 반주자로, 그리고 교회 여전도회 성가대 지휘자로 봉사했던 조 동창은 큰 규모의 중요한 기독교 행사가 있을 때면 무궁화 무늬가 그려진 곱고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무대에 서곤 했다.

### 모교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꿈을 실현하다

현재 ‘남가주동문합창단’에서 활동 중인 조 동창은 지난 2019년 8월, 국립합창단의 초청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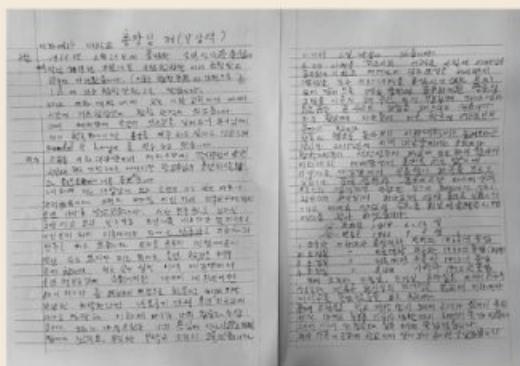
동창의 날 기념식에서 남가주동문합창단 단원으로 무대에 선 조 동창

아 ‘2019 광복절 기념 합창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귀국한 적이 있다(《이화동창》2019년 가을호 ‘이화인모임탐방–남가주동문합창단’ 참조). 합창단원 40여 명과 함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 후 모교 대학교회에서 마련한 특별무대에 서기 위해 8월 18일(일) 잠시 모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마침 대학교회에 오르간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조 동창은 교목님께 특별히 부탁해 대학교회(중강당)에서 헨델의 ‘라르고’를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영광을 얻었다. 비록 대강당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간직했던 소망이 실현된 셈이다.

조 동창은 내후년 2023년이면 80세가 된다. 편지 마지막에서 조 동창은 “이제 남은 소망이 있다면 무궁화가 그려진 한복을 입고 대강당에서 복음성가를 불러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성악과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것.

그때가 되면 자녀들이 팔순 기념으로 한국에 보내준다고 했지만, 나라 안팎의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못 오게 될 수도 있다며 “제 건강도, 코로나19 상황도 괜찮아지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조숙자 동창이 모교에 보낸 편지

글·정진숙(행정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회계법인 삼정KPMG 부대표 및  
여성리더모임 WIN 회장 서지희 동창

## 긍정적 마인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서지희(경영 85) 동창은 2021년 국내 4대 회계법인 최초로 삼정KPMG에서 여성 부대표의 자리에 올랐고 또한 리더를 키우는 여성 리더들의 네트워크인 사단법인 WIN(Women in INnovation)의 신임 회장에 선임되었다. 여성 회계사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서 동창을 삼정KPMG가 자리한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만났다.

기원전 인간에게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서 시작된 회계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발달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현재도 일반인들은 자신이 회계와 밀접한 관계라고 느끼며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 2학년생이었던 서 동창도 학교 취업 설명회에서 공인회계사(CPA)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다.

“CPA는 ‘전문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노석미 선배님의 설명에 매력을 느꼈어요. 전문 자격증이고, 결혼해서 육아와 일의 병행도 가능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3학년 때부터 고시반에 들어가 법정대학 3층에서 공부했어요. 회계법인에서 5년간 일하다가 남편(심상철 원로 법관)이 지방 근무를 가면서 3년간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후에도 회계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사 자격증 때문이었죠.” 이화에서는 1986년에 서 동창이 두 번째로 시험에 합격했고 2년 뒤부터 한두 명이 합격하기 시작해서 올해만 40명이 합격했다. 이화 동창 공인회계사가 현재 약 700명이 되기까지 서 동창은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제가 고시반에서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알고 있다 보니, 학교에 자주 가서 직업에 대한 홍보와 취업 설명을 하고 고시반 격려도 하게 되더군요.”

### 회계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

회계사는 공공재 성격의 회계감사 업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는 말과 행동에서 일관되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는 것이다. “회계사는 회사의 내부 통제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보는 중요한 직군입니다. 회계사는 회계감사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나 일관성을 담보하는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 심사위원에는 회계사가 반드시 들어가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누군가에게 바이어스될까 봐 민감한데, 회계사가 참여하면 심사과정을 믿는 거죠. 신뢰를 잃으면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요.”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가 산업이 흔들릴 만큼 중요하다 보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 동창은 신사업으로 초등 교육에서부터 단순한 스킬의 회계가 아닌 윤리를 감안한 회계 교육을 해서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사회에서는 회계사 수습 교육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에 가서 회계 교육을 몇 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다.

“회계학자이자 역사학자가 쓴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라는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에 기업의 경제, 재정을 포함한 회계를 잘 아는 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 회계 선진화 TOP10 프로젝트 & 서울 아시아·태평양 회계사 대회

서 동창이 가장 보람을 느낀 프로젝트는 ‘회계산업 선진화 프로젝트’다. 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2008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우리나라 회계산업 선진화를 위해 <회계선진화 Top10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회계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회계사협회를 방문했는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기관의 제도적 장치, 회계사 시험제도, 회계전문가 육성 제도, 회계사협회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회계를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 동창의 이 프로젝트 보고서는 이후 회계 업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2015년에는 서울 아시아·태평양 회계사(CAPA) 대회가 있었다. “이 총회를 서울에서 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경험한 터라 그 의미가 남달랐어요. 여기서 만난 세계회계사연맹 여성 회장의 당당함과 용기에 감동 받았고, ‘Changing the Game: Women in Business’라는 주제로 각국의 여성 리더들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기도 했어요.”

회계법인에서 서 동창은 처음 5년간은 회계감사 업무를 맡았다.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독

립된 제3자의 회계전문가가 그 적정성을 감사보고서 형태로 확인해 주는 업무다. 당시는 여성이 회계감사인으로 기업을 방문하면 신기하게 바라보던 시절이었다. 그 후 20여 년간 회계법인에서 진행한 회계감사 업무의 품질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업무를 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IMF 이후 회계 시장의 변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및

회계업계 인재육성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기를 거치면서 회계 업계의 품질 관리의 역사를 함께했다.

“회계감사 업무는 IMF를 기점으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글로벌 스탠다즈를 더 적용하도록 요청을 받아, 독립된 기구가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생겼고, 품질 관리 부분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확실하게 관리했어요. 삼정KPMG에서도 글로

벌 멤버펌인 KPMG의 방법론을 내재화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했어요. 일하는 방식, 서비스의 품질, 사람을 육성하는 방식이 레벨업 된 것이지요. 회계 품질 관리 업무 면에서도, 잘못 하면 회계법인이 문을 닫는 경우들을 경험하면서 그 중요성이 각인되어, 제대로 못 했을 경우 확실하게 징계를 내려요.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 빅4 회계법인(삼정, 삼일, 안진, 한영)의 품질 관리 실장들 모임이 계속 있었는데 그중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가장 오랫동안 한 제가 감독 기관의 외부 위원이나 자문 역할을 많이 한 편이에요.”

2016년부터 서 동창은 회계 업계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총괄을 맡고 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조직에서 사람의 성장을 돋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회계법인에서는 업무 품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해 바뀌는 것이 많아서 회계사는 자격증을 유지하는 데 평생교육이 필요해요. 회계법인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삼정KPMG의 4,000여 명 모두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돋는 인재 육성이 중요해요. 이러한 교육 업무는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같은 경험을 한 선배가 할 때 공감도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한 조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한 제가 교육 총괄 업무를 맡고 있고 이 업무가 저와 잘 맞아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업무와 관련된 책만 읽던 서 동창은 2007년 독서 경영 세미나에 참석한 계기로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읽었다. 책 내용 요약과 감명받은 점을 일요일마다 팀원들에게 ‘독서 향기’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10년간 보내왔다. 또한 ‘최인아(정외 84) 책방’에 회원 가입을 하고 사내에서 50명 회원의 독서 동호회 ‘다독다독’을 만들었다. 최 동창이 선정한 책이 편지와 함께 한 달에 한 권 오면 그 책으로 토론을 한다. “연령과 직급이 다른 친구들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면 업무 이외의 고민들도 함께해서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경험을 해요.”

오랜 기간 동안 한 조직에 몸담고 부대표가 되는 데에는 ‘긍정적 마인드’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서 동창도 참석했던 이화여대 특강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어떤 노력이 오늘의 당신을 가능하게 했느냐는 질문에 ‘늘 감사하는 훈련’이라고 답한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그 후로 서 동창은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시간을 갖고 있다. “훈련을 통해 감



2015 CAPA 총회 참석 당시 찍은 사진

사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사람과 사물을 긍정의 시선으로 관찰하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부대표가 된 후 서동창이 중점을 두는 사항은 삼정KPMG와 회계업계에 ‘포용’과 ‘다양성’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ESG의 부상으로 포용과 다양성이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삼정KPMG에서는 KNOW(KPMG Network Of Women) Korea라는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 임직원을 위한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 활동을 해오고 있고 차세대 여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 내 다양성 확대와 포용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 여성 리더 개발을 통해 조직 내 다양성의 가치 발휘를 추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업에 진입하는 여성의 비중은 40%지만 중간 관리자 비중은 6%로 급감하는데, 이는 출산 후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이유라 보여진다. 서동창은 여성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활동과 성평등 의식 제고 노력, 그리고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와 여성 리더십 개발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선진국을 쫓아 빠르게 성장하던 시대에는 통일성과 일사불란함이 중요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는 집단적 사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이 중요해졌어요. 다양성은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었어요. 큰 대야의 물이 파란 물감 한두 방울로는 색이 변하지 않듯이 조직 내 소수의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조직 변화의 임계치는 30%라고 해요. 그 정도의 다양성이 확보될 때 다양성의 가치가 발휘될 수 있어요. 현재는 자산 2조 이상 기업의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최소 1명은 두는 법제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비율을 늘리고, 공공기관 등 대상 조직도 확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회계의 딱딱함, 여성 운동가의 전사 느낌이 아닌 포용과 섬세함이 느껴지는 서동창은 이화인에게 자신만의 속도로 우직하게 나아갈 것,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멘토나 선배들에게 먼저 자

문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여성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더 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화 선배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KPMG C75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KPMG 2012 C75 Program - GE China Visit  
18<sup>th</sup> Apr, Shanghai



## 사랑의 수고로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이화여대 의대·의전원 동창회의 이화의료봉사회는 ‘기독교 정신의 진선미 이념으로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고, 열악한 환경과 역경에 놓인 이웃을 치유하며, 사랑의 수고로 행복과 희망을 나눈다’라는 비전으로 활동하는 의대·의전원 동창 모임이다. 이화의료봉사회의 임원인 성시열(의학 81) 의대·의전원 동창회장, 임선영(의학 82) 수석부회장, 김태경(의학 84) 사업이사, 박혜영(의학 89) 사업이사와의 줌(Zoom) 만남은 성시열 회장의 기도로 시작했다.

### 청소년 쉼터와 인연을 맺다

“의료 봉사 활동은 이화에 의대가 처음 만들어지고 졸업생이 나오기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방학 때면 농촌 봉사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많은 의대 동창들이 도처에서 오랜 기간 의료 봉사를 하거나 선교 사업을 하고 있지요. 1966년에 정식으로 시작된 의대·의전원 동창회에서는 그동안 의과대학과 의료원의 봉사 활동과 선교 활동은 지원했지만 동창회 안에 봉사 기구가 따로 없었어요. 2011년 제18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미혼모 시설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 어린이 복지원 등을 도울 계획을 했었지요. 그런데 어울림청소년쉼터 소장님과의 만남으로 청소년 쉼터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청소년 시설은 국가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



이화의료봉사회 발대식

었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큰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줄 병원이 필요했지요”라고 의대·의전원 동창회 제23대 성시열 회장은 이화의료봉사회의 시작에 대해 설명한다. “의사와 가정주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따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동창회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로 내 직장의 진료실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이다 보니 접근하기 좋았어요. 또한 근무하는 일상 속에서 봉사할 수 있었기에 10년간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박혜영 사업이사는 덧붙여 말한다.

이화의료봉사회는 20곳의 쉼터 청소년들에게 10년간 1,237건의 독감 예방접종을 해왔다. “매년 8월 말에 접종 대상 청소년을 쉼터별로 조사·취합하여 각 쉼터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연결합니다. 각 병원에서는 독감 백신 파동으로 백신 구하기 힘든 경우에도 쉼터용으로 추가 구입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라며 17년간 홀트의원에서 일한

김태경 사업이사는 회원 병원 61곳의 동창들에게 감사의 한마디도 잊지 않는다.

회원들은 일상의 작은 활동이라고 말하지만, 쉼터 소장들과의 회의에서 성 회장은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무관심, 학대, 가출 등 어려운 환경에 있던 쉼터 청소년들은 불신과 불만으로 빼딱한 가치관을 지닌 경우가 있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함과 동시에 자기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아픈 곳이 없으면 이 친구들이 병원에 올 일이 없는데 독감 예방접종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도 쉼터 친구들을 잘 알고 있는 저희 회원 병원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무료진료를 받고 있고요.”

무료진료는 10년간 총 1,066건이었는데 산부인과와 정신과의 진료 횟수가 가장 많다. 임선영 수석부회장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오는 쉼터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 대부분이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고 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성매매, 성매개 질환과 임신으로 저의 병원에 옵니다. 제가 치료하고 약 처방한 후에는 완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대부분 단기나 임시 쉼터 청소년이라 다음 진료 날짜에 오라고 해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오니 걱정입니다.” 지속적

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여러 종류의 성병에 걸린 쉼터 청소년이 뛰엄띄엄 병원에 오는 것이 안타깝지만 의료 봉사에 어려운 점은 없다는 임 수석부회장에게는 소소한 행복이 있다.

“쉼터 청소년이 두려움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지만 설명을 듣고 안심하며 나갈 때 의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햄버거집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으니 검정고시 공부하라는 저의 잔소리를 귀담아 듣는 모습이 고맙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1986년 서울시에 1,000여 명의 여성 노숙인 수용시설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350명이 이 시설에 있는데, 임 수석부회장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매달 무료진료를 나가고 있다.

#### 10주년 맞은 청소년 쉼터의 든든한 지원군

이화의료봉사회는 2012년에 시민단체의 도움과 GSK(GlaxoSmithKline)의 후원으로 5곳의 동창 병원에서 쉼터 여성 청소년 90명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했고, 2017년에 쉼터의 추천으로 여성 청소년 대상 무료 자궁암 검진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 가출 청소년의 의료 혜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0주년 행사에 참여한 봉사 회원과 쉼터 관계자



10주년 기념식에서 박애스더 청소년 상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2년 당시 3차 접종까지 40~50만 원의 비용이 드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요청이 쉼터로부터 있어서 의대 동창회에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GSK의 후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GSK에서 바로 의대 동창회로 후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NGO 등 시민단체의 협력을 얻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접종할 수 있었지요. 90명의 접종 대상자들이 모두 쉼터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3차까지 챙겨서 접종 완료하는 데 공을 들였어요”라고 김 사업이사는 말한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쉼터로부터 마스크 부탁을 받았는데 어디에서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봉사회 임원진 병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아서 보내기도 했다.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다. 구청 사회복지사가 위기 가정의 청소년을 쉼터로 보내면 최장 4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장기로 있는 친구들은 성실해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쉼터 소장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본다. 쉼터 소장들에게 이화의료봉사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화의료봉사회는 2021년 6월에 코리아나호텔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공로패와 감사장 전달이 있었고, 모범 청소년 6명에게 박에스더 청소년 상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박에스더의 도전과 성취’에 대한 리뷰가 있고 ‘이화의료봉사회와 쉼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도 있었다.

기념식에서 임원진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모범 청소년들이었다. 식장에 일찍 도착한 모범 청소년들이 서먹하지 않도록 임원진이 따로 카페로 가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념식 진행 중 혹시라도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이나

표현은 없는지, 꽂다발은 적당한지 세세하게 살폈다. 기념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 모범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잔치가 되었다.

“구한말에 난관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돌아온 박에스더의 삶에 대한 특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삶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념식 후에는 모범 청소년들이 박에스더의 정신을 생각하며 어렵더라도 학업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면서 불행한 이웃을 섬기는 삶,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후기를 보내왔어요”라며 성 회장은 따뜻한 엄마 미소를 짓는다.

의대·의전원 동창회에서는 의료선교사이자 교육자인 로제타 홀의 일기,『닥터 로제타 홀』에 박에스더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박에스더 기념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청소년상’을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모범청소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안심이라는 김 사업이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청소년 교육과 의료 지식에 대한 강의, 건강관리나 응급처치 법에 관한 책자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쉼터에서 가까이 있는 더 많은 병원을 참여하게 하여 쉼터 친구들이 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쉼터와 먼 거리에 있는 회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등 조직화와 확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화의료봉사회에는 쉼터의 요청에 최선의 응답을 하며 사랑의 수고로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이화 동창들이 있다.

글·허윤선(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살아 있음이 기적이며 어느 때보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간절합니다

잠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아프리카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이 절실히 느껴지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곳의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투병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의 오랜 동역자요 형제인 제레미야 목사님도 며칠 전 코로나19로 소천하셨고 가족은 병원에서 투병 중입니다. 송 선교사님 또한 독감 중세로 시작했으나 결국 코로나19로 아픈 시간을 보냈고 미각과 후각이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살아 있음이 기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으로 간절하고, 어두움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망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이 코로나19 시대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예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길 기도드립니다.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인생길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베티고 견뎌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움을 늘 기도 속에서 함께하고 있으면서 뵙지 못하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평안하신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여쭤보지도 못한 채 사랑의 안부를 부족한 글로 전해 드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경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연한 믿음 안에 우리 모두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흩어져 앞길 개척해 나가는 저희 세 자녀들(혜리, 지훈, 혜경)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남은 학업 잘 마치도록 도와 주시길, 주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를 품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글·이형란(행정 88)



## 기·도·해·주·세·요

1. 소천한 케레미야 형제의 천국 입성 예배, 남은 가족이 코로나19를 잘 이기고 퇴원하게 하소서.
2.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선도자, 동역자들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돋고 있는 아이들과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 및 식량 지원, 코로나19로 다시 학교 문을 닫았는데 집에서 공부하도록 교재와 성경책 전달, 의약품 전하기, 온라인으로 말씀&상담 사역하고 있는데 주의 위로와 사랑 전해지게 하소서.
4. 열악한 위생시설 개선- 물탱크 설치 등 계속 돋는 일에 주님의 지혜와 도움 부어 주소서.
5. 지역 간 통제로 자유롭지 못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며 감사합니다. 우물을 파서 물탱크를 설치하고 농경지를 일구게 돋고, 닭, 토끼, 염소 키워서 살아가게 돋는 데 코로나19 시대에 도움과 보람을 느낍니다. 유지 가능한 자립적 생활을 돋는 사람들에 지혜를 모으면서, 무엇보다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물, 파이프 연결, 물탱크, 지붕 개조 빗물 저장 설치 등 돋는 일에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6.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기만을 기도하며 몸바사, 테라까, 삼부르에 현지 동역자들 지켜 주시고 천재 오는 긴급구조요청,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잘 이뤄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모교 소식

##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온라인 개최

모교는 8월 27일(금)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424명, 석사 858명, 박사 118명 총 2,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학위수여식 행사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ewhauniv>)을 통해 사전 녹화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하윤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위수여식은 안선희 교목실장의 성경 봉독과 기도,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 김은미 총장의 말씀, 장필화 명예교수의 축사, 축도, 교가 순으로 진행됐다.



김은미 총장은 말씀을 통해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의 새 비전을 소개하며 "이화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맞서 담대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발전해 나갈 것"이라 다짐하고 "이화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어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샌델의 '공공의 선' 개념을 언급하며 "과거 신분사회에서 능력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공공의 선에 대해 더 너그러운 사회가 되었는가를 되물어야 한다"며 "135년 전 배움의 기회가 없던 한국 여성을 위해 학교를 설립한 여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을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의 선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이화인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축사는 1984년 아시아 최초로 모교에 설립된 여성학과 초대 교수로 부임해 37년간 1세대 여성학자로 헌신해 온 장필화 명예교수가 연사로 나서, 이화 교정을 떠나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필화 명예교수는 "어떤 목표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는 대안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며 "아를 감당할 만한 회복 탄력성만 있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격려했다.

정든 캠퍼스를 떠나는 마지막 행사인 학위수여

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아쉬움이 클 줄업생들을 위해 교가 영상 및 축하 영상도 제작해 축사와 함께 공개했다. 이와 함께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캠퍼스 내 포토월을 설치하여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증서와 학위기는 8월 27일(금)부터 소속 전공(학과) 사무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졸업생 중에는 금흔학칙 폐지 후 재입학한 체육과학부 전정자 동창이 포함돼 있다. 최고령 졸업자로 학사모를 쓰게 된 전정자 동창은 2학년 때 결혼으로 중단했던 학업을 잊기 위해 2019년 3월 재입학했다. 4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서 학업에 재도전해 투병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 온 전 동창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고령의 나이에도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 즐거웠고 보람된

순간이 많았다”며 “대학원 진학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연소 졸업생은 만 21세의 나이로 초등교육과를 졸업하는 권나경 동창이다. 3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초등교사를 꿈꾸며 임용고시에 매진하고 있는 권 동창은 “여성 최초 타이틀에 빛나는 이화여대의 졸업생으로서 모교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중국, 태국 출신의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6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EGPP는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교육하는 모교만의 특별한 세계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EGPP 졸업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또는 모국으로 돌아가 모교에서 쌓은 교육역량을 널리 발휘할 예정이다.

## ■ 이화가 만드는 미래, 이화가 만드는 AI

모교가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의 비전하에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Ewha Vision 2030+〉 발전 계획을 선포한 가운데, 창의연구 및 교육혁신을 목표로 추진 중인 AI 교육·연구 분야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은미 총장은 새학기를 앞두고 구성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화가 AI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AI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표명했다.

모교에 올해 신설된 AI융합학부 인공지능전공

은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3학년도에는 학부에 인공지능 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초지능·초연결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전공은 학과·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실무형 인공지능 고급인재에 대한 산업 수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전공과 함께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트랙’과 일반대학원 ‘컴퓨터의학 협동과정’ 등을 통해 모교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여성 인재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모교는 AI 관련 주요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교 교육대학원과 미래교육연구소가 운영하는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는 작년에 이

어 올해도 운영기관으로 단독 선정되며,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선도하는 모교의 우수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 8월 24일(화) 온라인으로 개최된 1주년 성과 발표회에서 정제영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 장은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가 1차년도 사업을 통해 41개 교육대학원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합쳐 AI융합교육의 기반을 조성했다면, 다가오는 2차년도에는 선생님들이 2학년 교육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고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엘텍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사업책임자: 민동보 교수)은 ‘인공지능(AI) 혁신허브사업’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향후 5년간(2021.7.1.~2025.12.31.) 총 27억여 원을 지원받아 ‘(로봇/드론) 다양한 하드웨어에 맞춰 자가 개선하는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한다.

‘AI 혁신허브사업’은 국내 대학·기업·연구소가 축적한 AI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개방형 AI 연구 환경을 조성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고려대와 서울대가 주관하고 모교를 비롯해 총 215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하는



‘K-허브 그랜드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컴퓨터공학전공은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1년 기초연구 실 사업’에 선정되어 ‘AiA(AI in Action): 자율행동 계획 인공지능’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AI 혁신허브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으로 컴퓨터공학 기반의 인공지능 연구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I 분야 선도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교는 2학기부터 연구 중심대학 발전을 위한 ‘프론티어 10-10 사업’과 R&D 총괄기획단 출범, 새로운 이화형 교육 모델 개발, 첨단분야 특수대학원 설립 등 <Ewha Vision 2030+>의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 모교, 라이덴 랭킹 상위 1% 논문 비율 국내 종합대학 1위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세계대학평가 ‘2021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 상위 1% 논문 비율에서 모교가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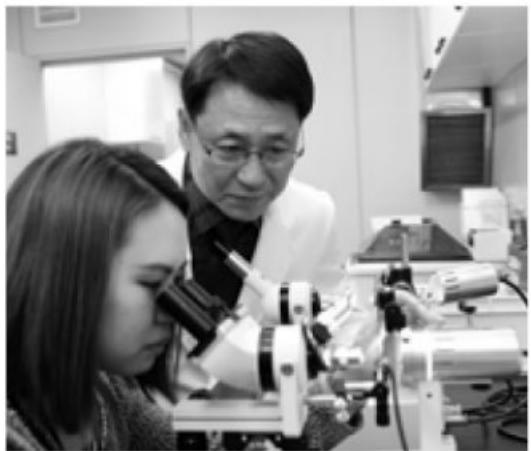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이 발표하는 라이덴 랭킹은 매년 세계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논문 비율을 평가하여 공신력이 높은 대학평가이다. 다른 세계대학 평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평판도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적 평가 요소들을 배제하고 학술정보서비스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구 톰슨로이터)의 DB를

토대로 객관적 연구의 질 지표만을 이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평가는 2016~2019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교는 인용 횟수 상위 1% 논문 비율 0.9%로 집계돼 국내 종합대학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순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모교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실적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모교는 지난 2013~2017년 라이덴 랭킹에서 5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모교가 상위 1% 논문 비율에서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고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교수진과 학생들의 열정, 이를 뒷받침한 학교의 지원 덕분이다. 모교는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수월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모교 연구진은 선도연구센터, 창의적연구사업단, 대학중점연구소, 핵심연구지원센터, BK21 4단계 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세계 경쟁력을 갖춘 핵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여 미래 사회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창립 135주년을 맞아 모교는 세계적 수준



의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연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Ewha Vision 2030+>를 선포했다. 선도연구분야 10개, 미래형 도전연구분야 10개를 선정해 전폭 육성하는 ‘프론티어 10-10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를 선도할 전략적 연구 분야 확립을 위한 R&D 총괄기획단을 신설한다. 또한 신촌 캠퍼스와 목동병원, 서울병원을 묶는 이화 첨단 융복합 Medi·Healthcare 클러스터 조성하고, 마곡밸리(M-Valley)(가칭)의 기업–산학협력단–병원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며 글로벌 바이오헬스 및 제약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학과 신설에도 박차를 가해 국내 최초 학부에 인공지능대학을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학문 지원과 융합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 ■ 모교, K-MOOC 최우수 강좌 국내 대학 중 최다 선정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연차평가에서 모교의 7개 강의가 최우수 강좌로 선정됐다. 모교는 올해 우수 강좌인 ‘블루리본 강좌’(8개) 최다 선정에 이어 최우수 강좌에서도 국내 대학 최다(7개) 선정의 기록을 세우며 탁월한 교육 역량을 빛내고 있다.



### 지동설 주장

1.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2.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출간
3. 천동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고 우아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K-MOOC는 국내 대학의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이다. 2015년 10월 오픈 이후 5년 만에 누적 회원 수 70만 명, 방문 횟수 1,700만 건, 수강신청 횟수는 160만 건을 넘어서며 진정한 한국형 고등교육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3년간의 운영비 지원이 종료된 국내 대학 K-MOOC 강좌를 대상으로 연차 평가를 진행한 결과 수강생 수와 참여율, 이수율 등의 정량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보인 10개 대학 20개 강좌가 선정됐으며, 모교는 7개 강좌가 선정되어 국내 대학 최다 선정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강좌는 김찬주(물리학) 교수의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 임석재(건축학) 교수의 <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 함인희(사회학) 교수의 <인간행위와 사회구조>, 최유미(디자인학) 교수의 <애니메이션의 이해>, 여운승(융합콘텐츠학) 교수의 <음악과 과학/기술>, 최재천(생명과학) 교수의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질병의 생태와 진화>, 임동선(언어병리학) 교수의 <아동의 신비한 언어습득력: 이중언어 아동> 총 7개이다. 모교는 2019년에도 5개 강좌가 정량

평가 만점을 받아 우수 강좌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우수 강좌를 뜻하는 ‘블루리본 강좌’에도 8개 강좌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블루리본 강좌는 K-MOOC 운영위원회가 정성적, 정량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며, 올해 선정된 블루리본 강좌는 15개 대학 30개 강좌다. 모교는 블루리본 강좌 8개 선정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다. 김찬주·임석재·최유미·임동선 교수의 강좌는 최우수 강좌에 이어 블루리본 강좌에도 선정돼 그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이와 함께 장한업(불문학) 교수의 <어원으로 문화읽기>, 이필두(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교수의 <디지털 사진의 이해와 활용>, 이원복(법학) 교수의 <의생명과학기술과 법>, 장이권(생명과학) 교수의 <동물의 행동>도 블루리본 강좌에 이름을 올렸다.

모교 교육혁신센터(센터장 임규연)는 2015년 4개 강좌로 K-MOOC 참여를 시작해 2021년 1학기 현재까지 총 21개 강좌를 개발하였으며, 2021학년도 1학기에도 17개의 수준 높은 강좌를 제공한 바 있다. 참여 초기부터 매년 우수 강좌로 선정되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교육 콘텐츠의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

더불어 모교는 2020년 2차 MOOC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2021년에 5개(개별강좌 3개, 특화강좌 2개), 2022년에 4개(개별강좌 2개, 특화강좌 2개)의 우수한 K-MOOC 강좌를 추가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모교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첨단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복합 하이브리드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모교는 우수한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대학교육의 혁신과 사회적 공유 가치의 확산을 실

현하며 이화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중앙도서관, 대학도서관 평가 1위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중앙도서관(관장 차미경)이 2020년 대학도서관 평가 1위를 차지하며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6월 24일(목)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대학도서관 대회'에서 거행됐으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하는 대학도서관 평가는 균형성과평가(BSC, Balanced Score Card)를 기반으로 '도서관 발전, 연구 및 교육 지원 서비스, 도서관 협력, 특성화 사례' 등 총 4개 분야, 23개 지표를 정량·정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모교 중앙도서관은 전국 382개 대학도서관 중 A그룹(재학생 1만 명 이상)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중앙도서관은 학술정보 공유 및 활성화

에 공로가 있는 기관에 수여하는 국회의장상(2020)을 비롯하여 한국도서관상(20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상(2018), 외국학술지원센터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2016~2020) 및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수상(2015) 등 학술정보 공유와 국내 도서관 서비스 선진화에 앞장서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왔다.

1923년 정동 교사 프라이홀에서 2,000여 권의 장서로 시작한 모교 도서관은 1984년에 현재의 '이화 100주년 기념도서관'으로 이전한 이래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풍부한 콘텐츠를 소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도서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이화인들이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타 대학 도서관 및 학술기관까지 확대된 상호협력 체계를 통해 분산되어 있는 방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료실을 다양한 형태의 자료 및 IT 기기 등의 활용이 가능한 독립적인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제 분야별 큐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이번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를 발판삼아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 서비스와 이용자 친화적 연구학습 환경 제공을 통해 미래 대학도서관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 총동창회 소식

## 8월 정기임원회에서 하반기 주요 일정 논의

2021년도 8월 정기임원회가 8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줌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 25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와 찬송가 453장 봉송에 이어 전 회의록 낭독 및 회계보고가 있었고, 하반기 주요 행사인 대바자회 및 '이화인의 밤'에 대한 안건 토의가 있었다.

우선 9월 예정인 대바자회에 대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각 과와 대학(원), 지회에 대바자회 공문을 발송하였고, 단체 대화방에도 공지한 대로 8월 24일(화)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판매 물품 촬영을 진행하도록 현수막 등을 준비하고 있음을 안내하였다. 남 회장은 고화질 촬영을 위해 가급적 대회의실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튜디오 촬영이 어려운 경우, 사진과 물품 내용을 총동창회에 보내주면 촬영팀이 제작할 수 있으며, 안내된 규격에 맞게 각 과에서 자체 제작하여 총동창회에 보내도 된다고 덧붙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지난해처럼 대바자회 URL을 이화 동창에게 제공하여 9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판매를 진행하며, 5~6개 과를 한 개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릴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한

미경(물리 88) 총무는 개선할 점을 보내주면 행사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고, 스튜디오 동영상 촬영시 참석 인원은 호스트 1인 혹은 2인을 포함하여 4인으로 제한하고 제작에 관련한 유의사항은 추가 공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반기 주요 행사인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이화인의 밤'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는 '2020 이화를 응원합니다' 행사로 대체했던 과정을 설명하고, 올해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 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2021년 '이화인의 밤'을 비대면으로 작년과 같이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이화인의 밤' 행사에 함께하는 동창들에게는 기념품과 달력, 동창수첩과 스프링 달력 등을 선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지난해처럼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총동창회 임원들과 함께 가질 예정이라



고 덧붙였다.

한편 이올(올해의 이화인) 연합모임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23일(토) 11시 화상으로 비대면 핸사를 개최할 예정임을 전하였다.

이어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8월 10일(화)에 북미주지회연합회 횡수영(화학 89) 회장이 총동창회를 방문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행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알렸다.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행사에는 올해도 팬데믹으로 인해 총동창회에서는 참석이 어렵게 되어 이화마

크가 새겨진 USB 200개를 기념품으로 미리 전달  
하여 응원을 보내온다.

기타 의견으로, 모교가 과와 대학을 통폐합하고 신설함에 따라 총동창회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과 회장 및 대학 회장과 의견을 나누고 모교 스크랜튼 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생활환경대학, 체육대학 동창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올해 '빛나는 이화인' 수상자인 박신정(조소 85) 하슬리아트월드 대표가 1,000만 원을 총동창회에 기부했다고 전하였다.

이경숙 고문 연임 등  
주요 안건 토의

9월 9일(목) 오후 2시 30분 9월 정기임원회가 총 42명의 임원 중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줌 화상 회의로 열렸다.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 찬송가 70장 봉송, 전 회의록 낭독 및 회계보고, 안전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대바자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8월 24일(화)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영상을 늦게 제출한 대학이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2개 학과에서 영상을 제출하지 않아 동영상에 포함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판매를 위해 물품 소개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일부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동창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체 공개로 바꿔었음을 알리고, 북미주지회연합회와 아시아지회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동영상과 목록을 그곳에도 보냈음을 안내하였다.

김용재(약학 82) 약학대학 회장과 김상희(가관)



81) 생활환경대학 회장은 대회의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화질이 좋고 생동감 있는 연출로 반응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하였고, 변은경(간호 83) 간호대학 회장은 목록 안내와 영상에 소개 물품과 주문번호가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물품 신청이 수월하고 화질이 안정적으로 잘 구현되었다며,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운영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한마음으로 참여해 준 각 대학과 지회 및 임원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개선 사항은 언제든지 총동창회로 연락해 줄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비대면으로 열리는 '2021 이화인을 응원'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동창들에게 보낼 감사 카드와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행사 후 작년과 같이 모교발전기금 전달식을 총동창회 임원들과 함께 가질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매년 '이화 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하는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방문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수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총동창회 이경숙 고문의 3년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총동창회 휴대폰을 통한 문자

투표를 실시하였고, 이경숙 동창이 고문으로 연임됨을 선언하였다.

한편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동창회 수첩 제작을 위해 연혁 정리와 후원이사 명단을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회칙 수정은 없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총동창회와 모교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모교 김은미 총장과 김혜숙 전 총장에게 후원이사 가입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음을 전하고, 향후 모교의 동창들에게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말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선교부 소식

## 동창 선교사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화요 기도 모임 가져

#### ■ 렘 29:11-13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코로나19가 한창이지만 이화 동창 선교사들과 이화,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뜨겁게 중보하는 화요 기도 모임이 줌으로 진행되었다. 총 23명의 동창 선교부원들이 모여 위의 말씀의 약속을 불들고 눈물로써 뜨겁게 기도드리는 시간이었다.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다 잠시 귀국한 중인 오주영(화학 94) 선교사, 영국에서 사역하다 잠시 귀국한 한현주(피아노 90) 선교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사한 점은 세계 각지에 있는

동창 선교사들이 줌으로 접속하여 실시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오주영 선교사는 딸(양다원, 연세대 9월 입학 예정)의 대학 준비와 한국에서의 여러 일들을 위해 잠시 한국에 귀국하였다. 오 선교사가 한국에 나오는 상황이 생겨 평소에 부모님을 볼 수 없었던 아들(양근원)이 군대에서 특별 휴가를 받아 10일 동안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열렸다. MK들은 군 휴가를 받아도 멀리 타지에 있는 부모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주님께서 귀한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한 일이었다.

또한 오 선교사가 딸의 대학 생활 준비 후 9월 5일(일)에 선교지로 출국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어머니로서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때 부모와 떨어져 한국에서 생활하는 MK들의 삶에 대해서도 더욱 알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현주 선교사는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남편 유해석 선교사와 아들(유예형)이 코로나19에 걸리는 응급 상황을 겪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남편과 아들의 응급 상황을 올려드리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간증했을 때 모두의 눈시울이 불어졌다. 유 선교사와 아들 모두 회복이 되었고, 계속 사역을 활발히 이루어 감에 감사드린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목숨 바쳐 선교하는 동창 선교사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했다.

두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데, 함께 읽으면 중보하자. 동창 선교사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이다.

오주영 선교사

1. 아들이 군대 생활 믿음 가운데 잘 해내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도록, 딸이 9월에 연대 입학하는데 수강 신청, 학교 생활(온라인 수업)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2. 제가(오주영 선교사) 한국 방문 중 해야 하는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양가 부모님, 자녀, 교회, 후원자분들, 친구).
  3. 카자흐스탄으로 9월 5일(일)에 출국하는데 조지아로의 사역지 이동에 따른 해야 할 일, 때에 맞추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4. 특별히 남편(양병순 선교사)이 수요일 써벽 조지아 한 달의 합방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가는데 안전하게 하소서

한현주 선교사

1. 출국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소서.



2. 남편과 다시 떨어져 경유해서 가는 항공인데 올 때 코로나19 걸렸던 공항을 다시 거치게 되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3. 가족이 헤어질 때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아들이 영국에 가서 자가 격리하고 학교 갈 준비를 잘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두 선교사의 나눔 이후에 세계 각지에 있는 동창 선교사들이 보내온 기도 편지와 기도 제목들로 중보하고, 나라, 북한, 한국 교회, 열방, 이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드렸다. 또한 2021년 「동창선교사 기도수첩」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간절히 중보하였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  
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화  
동창 선교사들과 이화, 나라, 열방에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만남을 갖지 못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주 줌으로 모여서 중보하  
며, 오히려 세계 각지의 동창 선교사들과 동창들  
이 참석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에 감사드  
린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린다.

글·이수진(주소 05)

# 당신을 후원이사로 모십니다

총동창회 연회비(1년에 한 번씩 3만 원 납부)와 평생회비(평생 한 번 납부, 1983년 이전 졸업 동창은 30만 원, 1984년 이후 졸업 동창은 50만 원) 납부를 통해 총동창회에 큰 사랑을 보여 주시는 24만 이화 동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에 힘입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모교발전기금 마련, 《이화동창》회보 제작 등 각종 사업을 펼치며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에 사랑을 보여 주시는 이화 동창 여러분께 총동창회 후원이사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는 2년 임기이며, 연 100만 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동창회는 후원이사 여러분을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모교에서도 후원이사님들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종합대학을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동창으로서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후원이사 가입을 통해,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진선미의 이화 정신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규호

##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mailto:ewhaalu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대학(원) 소식

### 약학대학

회장 \_\_ 김용재(약학 82)

#### 약대 동창 선교부 특강

약대 소식지 제39호를 8월 9일(월) 출간하여 3,700부를 약대 동창에게 발송하였다. 이번 소식지에는 지난 4월 21일(수) 소천한 고 윤혜정(약학 51) 교수를 추모하는 글을 실었다. 은퇴 후에도 모교 동창회 행사 참석은 물론 약대 선교부 예배에도 꼭 참석했던 믿음의 선배였다. 또한 20여 년 후원했던 정원노인요양원의 원장 강혜식(약학 62) 동창의 후원감사 글과 문봉장학금 후원자 김은자(약학 62) 동창 및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김순영(약학 62) 고문의 동창회 사랑의 이야기, 2020년 졸업생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였다.

8월 10일(화) 오후 7시30분 약대 동창 선교부 특강이 줌 미팅으로 있었다. 매년 8월 개최하는 약대 동창 선교부 특강은 재학생과 동창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강사는 김지연(약학 97) 동창으로, (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자 「너는 내 것이라」의 저자이며 기독교 성교육 강사로 여러 나라에서 강의를 한 자랑스러운 동창이다.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위한 제언을 제목으로 한 강의와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의 성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함과 이화에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약학대학 《동창회 소식》 제39호

## 과(학부) 소식

### 영어영문학과

회장 \_\_ 윤유정(76)

#### 바자회를 위한 영상 촬영

총동창회 바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 해째



바자회를 위한 영상을 촬영한 영어영문학과 동창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영문과에서는 올해도 적극 참여하여 8월 23일(월)에 이진창호의 중문과 마루 제품, 수전을 비롯해 동화약품의 신제품 치약과 마스크팩, 그리고 앤티크 갤러리 힐하우스의 앤티크 제품 등을 소개하는 촬영을 마쳤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 동창들의 성원에 힘입어 바자회가 성황을 이룰 수 있었다.

## 사회복지학과

회장\_\_한인영(72)

###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에 취임한 이수연 동창 축하

한인영 회장은 홀트아동복지회 제21대 회장으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수연 동창을 축하하였다

로 취임한 이수연(85) 동창을 방문하여 담소를 나누고 회장 취임을 축하하였다. 심정원(92)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순돌(89) 이화여대 교수 등 동창회 임원들이 함께 방문한 이 자리에서, 이수연 동창은 한국에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아동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임원진들은 이수연 동창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조소과

회장\_\_박신정(85)

### 제38회 이화조각회 정기전을 온라인으로 진행

제38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조각가 길을 가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참여 작가 한 명씩 유튜브로 전시회를 하고, 이 각각의 전시회가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졌다. 전시는 5월 24일(월) 첫 업로드를 시작으로 릴레이로 이어진 뒤 7월 15일(목)에 마무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50명의 작가 한 명 한 명의 작품 세계를 깊게 소개 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8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 지회 소식

### 남가주(LA) 지회

회장\_\_남궁봉일(체육 81)

#### 백신 접종 완료하고 대면 모임 시작

2022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지인 남가주 지회는 2022년 10월 27일(목)부터 30일(일)까지 열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이보경(생미 80) 동창, 행사위원장으로 차기 회장인 정현숙(체육 87) 동창을 선출하고 열심히 내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이영애(성악 57) 동창을 비롯하여 많은 동창들과 동창들의 배우자가 소천하여 유난히도 많은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남가주 지회는 회원들이 100% 백신 접종을 마치고 야외 혹은 거리 두기가 가능한 넓은 실내에서 대면 모임을 시작하였다.



대면 모임을 재개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선교부(부장: 조남화(간호 63))는 격주마다 모이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모임(회장: 신군애(간호 72))과 건미회(회장: 유미라(체육 72)) 그리고 북부 모임(팀장: 송혜자(불문 67))은 매달 대면 모임을 하고 있다.

한편 녹미회(회장: 서정숙(생미 79))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취소되었던 전시회를 재개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남가주한인미술가협회 정기 전에 정나경(서양 71입)·표양숙(조소 76)·서정숙(생미 79)·이진희(조소 89)·남궁경(서양 90)·최고운(조소 00) 동창이 참여하여 멋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디트로이트 지회에서 주최하는 2021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동창들이 합창과 텔런트 쇼 연습을 줌으로 하고 함께 모여 영상을 찍으며 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바쁘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올해 남가주 지회는 BTS의 〈Permission to Dance〉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의 텔런트 쇼에 참가할 예정이며, 40대에서 90대까지의 동창들과 어린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함께 뮤직 비디오를 만들며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남가주 지회에서 가장 원로 선배인 동양순(문과 43) 동창이 지난 4월 23일(금)에 98세 생신을 맞이 하였다. 동양순 동창은 1949년에 텍사스로 유학을 온 뒤 한인 최초로 마취과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였다. LA로 아주 이후 Kaiser 병원에서 마취과 간호사로 30년간 근무하고, 60세 되던 해에 한의과 대학에 입학하고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년 전 한의사인 남편과 사별할 때까지 활발히 일을 해왔다. 여전히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양순 동창은 남가주 지회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다.

## 멜버른 지회

회장 \_\_ 신은미(사회 99)

### 제한 조치 완화로 모임 진행

2021년 두 번째 모임을 7월 14일(수) 멜버른 시내 일식당에서 가졌다. 멜버른도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에 따라 락다운이나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었으나, 다행히 이날은 제한 조치 완화로 단체 모임을 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한 동창들은 그간의 근황을 공유하며 직접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였다.

이날 한국에서 온 강주연(영교 88) 동창이 동창회에 처음 참석했는데, 너무나 밝고 적극적인 모습에 서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다.



모임을 갖고 근황을 공유한 멜버른 지회 동창들

또한 김향림(외국어교육 75) 동창이 원활한 모임을 위해 소정의 기금을 지회에 기부하였고, 안수산(영문 84) 동창도 지원하여 모두들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_ 이영완(정외 81)

### 석화자 동창의 집에서 모임 가져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영상으로 월례 모임을 진행하였고, 2021년 6월에 첫 대면 모임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Hillsborough에 위치한 고급 저택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는 석화자(교육 60) 동창이 모임 장소로 집을 내어 주어 36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창들은 정원 구석 구석에 숨겨 놓은 번호표를 찾아서 상을 받는 보물찾기 놀이를 즐겼다. 칠순을 맞은 양승희(사학 73) 동창이, 참석한 모든 동창에게 맛난 도시락을 점심으로 대접해 주었고, 북가주 지회에서는 푸짐한 떡으로 생일 케이크를



피크닉 모임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준비해서 칠순을 축하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팬데믹 이후 처음 갖는 이 대면 모임은, 모든 참석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모임 장소 입장 시에 체온을 측정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기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7월에도 대면으로 모임을 갖고, 이화국제재단을 소개 받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화국제재단 장학금 약정과 모금을 했다.

8월에는 호수가 있는 공원에서 여름 피크닉으로 대면 모임을 갖고, 장학금 모금을 위한 작은 바자회도 열었고, 강사를 초빙해 간단한 율동과 춤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남에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누며 지회가 운영되고 있다.

## 시애틀 지회

회장 \_\_ 박명호(정외 78)

### 대면 모임으로 여름 야유회 행사

7월 31일(토) 박명호 회장 집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반만에 처음으로 대면 모임으로 여름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38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소식들을 나누고, 건강함을 서로 축하하면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지 못했던 동창들은 이날 함께 〈Happy Birthday to Me〉 노래를 부르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화국제재단에 보낼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명란젓을 판매하여 1차로 900여 달러의 기금을 모았고, 12월 초에 있을 연말모임에서 2차 모금을 하여 이화국제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여름 야유회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또한, 지금까지 19년째 계속해서 동창회 여름 야유회 행사의 모든 경비를 후원해 준 김예자(커미부 60입)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예자 동창은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편부모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지금까지 19년 동안 총 274명에게 미화 41만여 달러(한화 5억여 원)를 장학금으로 후원했다.

8월에는 시애틀 지회의 대선배인 김자경(사복 51) 동창의 93세 생신을 맞아 합창반원 박성숙(기독 69)·박정혜(체육 71)·조혜순(교공 72)·이재경(과교 80) 동창이 생일 축가와 성가로 축하를 하였다. 이날 모인 동창들은 김자경 동창의 학창 시절인 1950년대의 이화인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김자경 동창의 93세 생일 축하 모임

## 애틀랜타 지회

회장\_\_차희숙(체육 77)

### 16개월 만의 대면으로 기쁨 가득한 모임

6월 13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McDaniel Farm Park에서 야유회 모임을 가졌다. 16개월 만에 이루어진 대면 행사로, 선후배가 한데 모여 기쁨과 반가움으로 가득 찬 모임이었다. 참석한 40명의 동창들은 이미애(성악 89) 동창의 지휘 아래 교가를 목이 터지게 열창하였고, 조성숙(가관 64) 선교부장의 기도로 야유회를 시작하였다. 맛있는 도시락과 합창부·체육부·친교부 이벤트, 참가상(손선풍기) 및 푸짐한 상품 그리고 바자회 등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이번 모임을 위해서 애써준 임원진과 참석한 동창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란다.



McDaniel Farm Park에서 야유회 모임을 가진 애틀랜타 지회

## 워싱턴DC 지회

회장\_\_서혜경(정외 90)

### 장학금 모금 캠페인 진행

지난 6월, 워싱턴DC 지회는 모교에서 유학 중인



자살 예방 걷기 대회에 참가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개발도상국의 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화국제재단의 'HOPE FUND' 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많은 동창들의 참여로 5,000달러를 모금하여 이화국제재단에 기부하였다.

8월 21일(토) 워싱턴가정상담소(이사장: 신신자(영문 66))가 주최한 자살 예방 걷기 대회에 지회의 임원진도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기부금 전달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방지를 위한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에 동참하였다.

한편 지회는 새로운 주소록을 발간, 동창들의 근황을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동창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_문성애(생미 81)

### 15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반가운 만남

6월 23일(수) 모임은 코로나19 이후 15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반가운 만남이었다. 캐나다에서 이사온 신성아(컴공 93) 동창이 집들이 겸 초대해 주어 13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간만에 만난 선후배들은 모임 장소에 들어서면서 서로 얼싸안고 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산해진

미를 맛있게 즐기며, 팬데믹 동안의 회포를 푸느라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빨간 동창 수첩과 이화 달력도 받고, 그간 읽은 책을 교환하기도 한 동창들은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해야 했다.

8월 18일(수) 모임은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천장이 높고 화려하게 장식된 라틴 식당에서 열렸다. 델타 변이로 다소 뒤숭숭한 가운데 참석한 6명의 동창은 아름답게 장식된 갖가지 음식들로 눈 요기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재미난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을 산책 하며 모처럼 호랑나비도 보고,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꽃밭에서 사진도 찍으며 아름다운 한여름의 오후를 즐겼다.



신성이 동창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박윤옥(간호 75)

### 합창 영상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

필라델피아 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줌 동창회를 해왔는데, 북미주지회연합회 영상 총회에 낼 영상을 위해 8월 24일(화) 페어마운트파크에서 합창반의 6명 동창들이 반갑게 만났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모인 필라델피아 지회 합창반 동창들

흰 바지와 검정 티셔츠를 교복처럼 입고 노래하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몇 장면을 찍는 것도 쉽지 않아 배우들의 어려움도 느껴 보며 오랜만에 여고 생이 된 듯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합창반 반장 오성실(영문 68) 동창의 아들 한대훈 씨가 시간을 내어 촬영해 주었고, 촬영 후에는 오 동창의 남편 한동희 씨가 인근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대접해 주어 모두가 입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호치민 지회

회장 \_\_ 원귀정(영문 89)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이 되는 동창회

베트남 특히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지역은 8월 중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저녁 6시 이후 통금이 있고, 식료품 구입이나 의료 목적이 아니면 외출도 금지되는 강력한 정부 지침하에서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호치민 지회의 대선배인 강정옥(융합보건 67) 동창은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결정하고 들어갔으며, 다른 몇몇 동창들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한국에 들어갔다. 호치민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신년회에 참석한 강정옥 동창(오른쪽)과 호치민 지회의 최연소 회원인  
비혜림(의직 10) 동창

있는 김민영(정외 04) 동창은 호치민 교민지에 정기적으로 의학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의료 여건이 좋지 않고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호치민인자라, 많은 교민들이 칼럼을 읽고 큰 도움을 얻게 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 호치민 지회는 그동안 모아 놓았던 회비 중 일부를 호치민 한인회에 기부하여 생계가 곤란한 한인 가정에 식료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려운 여건으로 동창들이 참여하는 봉사는 어렵지만 호치민 한인사회에 이화의 동창회가 보탬이 되고자 힘을 모았다.

또한 모교의 학관 리모델링 사업에 함께하자는 동창들의 뜻을 모아 호치민 지회 이름으로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학관은 많은 동창들의 추억이 함께하는 공간이어서 모두에게 더 뜻깊은 의미가 있었다. 하루 빨리 호치민의 사태가 진정되어 예전처럼 동창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길 바란다.

해 역시 'Food Angel' 후원을 위한 오찬 행사에 참여하였다.

Food Angel은 'Waste Not, Hunger Not With Love'라는 미션 아래 빈곤층을 대상으로 매일 1만 개의 무료 식사와 2,000개의 무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는 홍콩의 비영리 단체로, 운영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자선행사 모금 및 봉사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번 'Food Angel' 후원을 위한 오찬 행사는 전 홍콩 지회 회장을 역임했던 최명성(교공 76) 동창의 주최로 홍콩 애드미럴티(Admiralty)의 콘래드 호텔(Conrad Hotel)에서 개최되었다. 모임에는 동창 5명의 도움으로 총 32명이 참여, 40만 홍콩달러(한화 약 6,000만 원)의 금액을 모금하였으며, Food Angel에 전액 기부하였다.

홍콩의 코로나19 현지 감염자 수는 현재 수주째 0명에 수렴하고 있으나 식당 테이블 인원수 제한 등의 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콩 지회는 모임 규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다음 동창회를 준비 중에 있다.

홍콩의 끊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일상으로의 복귀와 함께 다시 시작될 2021년 하반기 동창회를 기대해 본다.



Food Angel 오찬 행사에 참여한 홍콩 지회 동창들

## 홍콩 지회

회장\_\_한유미(융합보건 90)

### 동창 주최 자선 오찬 개최

8월 11일(수) 홍콩 지회 동창들은 작년에 이어 올

**고 박보희(사복 51) 동창**

7월 20일(화) 박보희 동창이 92세를 일기로 숙환으로 소천하였다. 박보희 동창은 사회복지학과 1기 졸업생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복지학 박사이다.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네스코 한국 대표, 사회복지정보원장을 지냈으며, 2002년에는 여성 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추미여성대상을 수상했다.



고 박보희 동창

**김매자(무용 66) 동창**

8월 25일(수)부터 29일(일)까지 김매자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제27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가 아르코예술극장과 강동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창무국제공연예술제는 창무예술원이 1993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공연예술축제이다. 부대행사로 8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김매자 동창이 진행하는 '춤본Ⅱ' 워크숍이 진행됐다.



김매자 동창

**김보희(동양 74) 동창**

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김보희 동창이 6월 1일(화)부터 7월 3일(토)까지 서울시 성북동에 위치한 '스페이스캔'과 한옥 '오래된 공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보희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신작 5점을 포함해 16점가량의 작품을 선보였다.



김보희 동창

제주에 살며 캔버스에 담아온 제주의 바다와 나무 등 싱그러운 풍경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 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희경(조소 79) 동창**

8월 31일(화) 김희경 동창이 수원대학교 교수 정년퇴임을 맞아 대통령으로부터 균정포장을 수상하였다.



김희경 동창

**최유미 (생미 85)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최유미 동창이 조형예술대학 학장과 디자인대학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최유미 동창의 디자인학 강좌 <애니메이션의 이해>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블루리본 강좌에 선정되었다. 블루리본 강좌는 K-MOOC 운영위원회가 정성적, 정량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는 강좌로 올해는 15개 대학의 30개 강좌가 선정되었다.



최유미 동창

**김은미(약학 86) 동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은미 동창이 법과학부장으로 승진하였다. 김은미 동창은 198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로 합류했으며, 약물 및 마약분석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김은미 동창

### 서영주(법학 86) 동창

7월 1일(목) 서영주 동창이 KBS 성평등센터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서영주 동창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과장,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KBS 성평등센터는 2018년 11월 국내 방송사 최초로 문을 열었으며, 사내 성평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 직속 상설기구다.



서영주 동창

### 이미영(무용 86) 동창

한국춤협회 이사장 이미영 동창은 '2021 춤&판/고무신 춤축제'를 개최했다. '춤&판'은 8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고무신 춤축제'는 8월 28일(토)부터 29일(일)까지 국민대학교 예술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9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유튜브에서 녹화 중계되었다. '고무신'이라는 명칭은 옛것이라는 의미의 고(古)와 춤의 무(舞), 그리고 새로움이란 뜻의 신(新)이라는 조합으로, 옛 것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 춤으로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영 동창

### 채림(불문 86) 동창

5월 14일(금)부터 6월 13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학고재 갤러리 본관에서 개인 전 '옻, 삶의 한가운데'를 가졌다. 이번 전시에는 옻칠을 바탕으로 한 회화 144점이 출품됐다. 채림 동창은 옻칠의 한 기법인 지태칠을 변형하고, 순금, 진주, 자개, 보석 등 여러 귀금속을 재료로 활용하였다.



채림 동창

### 김곡미(생미 87) 동창

연암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곡미 동창이 '(사)한국지식재산 교육연구학회 2021년 춘계학술 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논문은 「언택트 시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문화마케팅 상품개발에 관한 연구」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문화마케팅 전략을 도출하였다.



김곡미 동창

### 신미혜(섬예 87) 동창

8월 11일(수)부터 17일(화)까지 갤러리 코트번 TJB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신미혜 동창은 꽃과 물결, 나비의 형태를 살알수, 점수, 코일링, 깔깔수 등의 자수의 변형 기법을 이용해 강렬한 색채와 선들로 풍요롭게 표현하였다.



신미혜 동창

### 최선(제약 87)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최선 동창의 공동연구팀의 논문이 간암 발병의 새로운 메커니즘 규명 및 항간암 펩타이드 설계를 통해 새롭게 바이오 의약품 개발 가능성을 열은 것으로 평가되어 세계적인 학술지《Theranostics》에 7월 6일(화) 게재되었다.



최선 동창

### 신영선(장미 88)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녹미회장이자 패션컬리지 대표 신영선 동창이 6월 30일(수)부터 7월 6일(화)까지 인사동 토포하우스



신영선 동창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였다. 'CREATIVE CHAOS'란 주제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17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 이상미(섬예 88) 동창

7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7층에서 열린 핑크 아트 페어에 참가하였다. 이상미 동창은 삶의 관계에서 미처 인식되지 못한 채 존재하는 '절벽'들을 거즈와 실로 한 겹 한 겹 쌓아 표현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콜라주, 자수, 페인팅으로 표현되었다.



이상미 동창

#### 윤선흥(동양 88) 동창

6월 8일(화)부터 7월 4일(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 예울마루 전시실 1,2,3관에서 개인전 '내 안의 식물원' 전을 가졌으며, 7월 7일(수)부터 27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희수 갤러리에서 '소곤소곤 식물원' 전을 열었다. 윤선흥 동창은 식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꾸준히 여러 전시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윤선흥 동창

#### 김재수(독문 89) 동창

김재수 동창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에 6월 25일(금)자로 취임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4년 6월 24일까지 3년이다. 김재수 동창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국장, 원내 행정기획실장,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재수 동창

#### 김정연(조소 89) 동창

8월 11일(수)부터 31일(화)까지 아트비트갤러리에서 개인전 '부

드러운 방·시간·거울·심담(深談)'을 열었다.

#### 이지수(동양 89) 동창

7월 7일(수)부터 18일(일)까지 서울 울시 종로구 통의동 팔레드 서울 갤러리에서 개인전 '보이는 대로'를 열었다. 이지수 동창은 미국 뉴욕 Pratt Institute, MFA Painting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작품 활동 후 귀국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지수 동창

#### 전경화(섬예 89) 동창

7월 23일(금)부터 9월 5일(일)까지 양평군립미술관에서 개최된 '비화장 매뉴얼: 드로잉 시점' 전시에 초청되었다. 전경화 동창의 작업은 수지에 물리적인 힘을 반복적으로 가하여 얻어지는 극히 섬세한 섬유 형태의 실과 같은 물질을 중첩하여 자유로운 구조적 곡선의 형상을 구축하는 작업 방식으로, 현대미술에서의 다양한 드로잉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전경화 동창

#### 김희라(동양 90) 동창

7월 13일(화)부터 31일(토)까지 전라남도 진도에 위치한 진도 현대미술관에서 초대전 '숨 쉬는 것들의 순간Ⅱ'를 선보였다.



김희라 동창

#### 이수정(작곡 90) 동창

이수정 동창은 불가리아 문화부와 소피아 시청의 초청으로 제52회 Sofia Music Week 국제음악제에서 한국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Flight Over The Korean Night〉 음악회에 초대되



이수정 동창

어 작품 발표를 하였다. 음악회는 6월 14일(월)에 소피아 국립필하모닉 전용 홀 Zala Bulgaria 내에 있는 실내악홀에서 개최되었고, 7월 15일(목)에 부르가스 시청의 초청으로 앙코르 공연을 하였다.

### 장은진(심리 90) 동창

한국심리학회 회장 장은진 동창이 8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심리적 통증'을 주제로 2021 제75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한국심리학회는 1946년 창립되어 현재 15개 분과학회로 구성되고 16개의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회원 수가 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장은진 동창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2020년 9월 1일부터 제50대 한국심리학회 회장·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활동 중이며, 2020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은진 동창

### 서혜영(조소 91) 동창

6월 19일(토)부터 7월 18일(일)까지 갤러리 소소에서 개인전 'prolongement 남겨둔 가지'를 열었다.



서혜영 동창

### 손정은(조소 92) 동창

8월 2일(월)부터 8일(일)까지 손정은 동창의 기획전 '빈집-예술가 유령'이 성북문화재단후원으로 장위동 219-330번지에서 개최되었다.



손정은 동창

### 우현수(중문 92) 동창

우현수 동창이 7월 1일(목) 필라델피아미술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부관장으로 승진하였다. 필라델피아미술관은 미국 5대 미술관 중의 하나로, 우현수 동창은 2006년부터 큐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하여 아시아미술부 디렉터를 맡아왔다.



우현수 동창

### 이희준(약학 92) 동창

극작가 이희준 동창의 창작 뮤지컬의 다수가 무대에 올랐다. <라레볼뤼시옹>은 5월 18일(화)부터 8월 1일(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해적>은 6월 15일(화)부터 8월 29일(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1관에서 공연되었다. <마마, 돈크라이>는 5월 27일(목)부터 8월 22일(일)까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공연되었다.



이희준 동창

### 태혜신(무용 93) 동창

6월 18일(금) 강동아트센타 소극장에서 열린 '배정혜의 新전통 V'에 참여해 태혜신 동창의 안무작인 독무 <연화경승무>를 공연했다. 6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포스트극장의 기획 '전통과 창작과의 만남'에 참여해 작품 <The Spring Day 봄날2 : 작은 위로>를 공연했다. 또한 8월 8일(일) '2021 20th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 폐막 초청공연으로 태혜신카르마프리무용단의 <Flowers in Heaven>을 공연했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영되었다.



태혜신 동창

한편 7월 29일(목) 인천 연수구 주최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ICLC)의 축수보고회 자문으로 참여했다.

### 윤하나(의학 94) 동창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하나 동창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2021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에서 '스포츠모델 오픈 쇼트' 와 '시니어모델' 2개 분야에서 메달을 수상했다. 윤하나 동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뇨의학과 의사로, 치료와 운동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하나 동창

### 김은주(생미 96) 동창

세계적 기업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은주 동창이 25년간의 디자인의 경험을 담은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 : 25년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일하며 배운 것들」을 출간했다. CJ,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모토로라 등을 거쳐 구글 본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배운 것들을 담고 있으며, 동시대 디자이너들과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김은주 동창

### 김영애(서양 97) 동창

이안아트컨설팅 대표 김영애 동창이 롯데백화점 아트비즈니스 실장(상무)으로 채용되었다. 김영애 동창은 롯데갤러리의 큐레이터들과 함께 아트 마케팅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애 동창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현대미술 사학과를 거쳐 프랑스 파리 에콜 뒤 루브르에서 박물관학 석사를 마쳤고, 파리 8대학의 미디어아트 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 「나는 미술관에 간다」, 『갤러리스트』 등이 있다.



김영애 동창

### 이말용(조소 98) 동창

이말용 동창의 개인전 '시간을 꿰매어 공간을 짓다' 가 6월 7일(월)부터 20일(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문래예술공장 M30에서 개최되었다. 이말용 동창은 플라타너스 이파리로 옷을 지으며 인생무상을 조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말용 동창

### 강서경(동양 00) 동창

8월 28일(토)부터 11월 7일(일)까지 대만 Winsing Art Place(文心藝所)에서 개인전 'Rove and Round'를 전시 중이다. 또한 7월 14일(수)부터 8월 20일(금)까지 미국 뉴욕의 Pace Gallery에서 단체전 'Hiding in Sight'를 가졌다.



강서경 동창

### 민보영(동양 00) 동창

7월 13일(화)부터 18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아트로직스페이스에서 개인전 'Never falling trees' 전을 열었다.



민보영 동창

### 성인제(동양 00) 동창

8월 18일(수)부터 9월 12일(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밴에서 개인전 '수상한 연관성'을 열었다. 성인제 동창의 이번 작품들은 서로 다른 시공간의 관계없는 인물들이 한 화면으로 들어오면서 생성되는 이야기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혼재하는 대상들을 각기 다른 시공간에 두거나 겹쳐 놓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생성되도록 유도했다.



성인제 동창

### 유선희(통계 04) 동창

6월 17일(목) 유선희 동창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정기 임원 인사에서 리스크자문본부 파트너로 승진하였다. 유선희 동창은 삼성SDS를 거쳐 2006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하였으며, 정보보안 서비스와 전산감사를 담당하여 왔다.



유선희 동창

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 조혜경(대학원 10) 동창

조혜경 동창이 첫 시집『그 오렌지만이 유일한 빛이었네』를 펴냈다. 시집에는 다채로운 언어로 삶의 내면을 들여다본 44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조혜경 동창은 현재 전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년 시 ‘레위기 저녁’으로 서정시학 시인상을 받았다.



조혜경 동창

### 박은영(무용 05) 동창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은영 동창이 이화여대박물관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6월 24일(목) 위촉식을 진행했다. 박은영 동창은 2007년 KBS 공채 33기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도전 골든벨>, <TV미술관>, <연예가 중계>, <비타민> 외 다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방송인으로서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약하며 친숙하면서도 통통 튀는 매력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은영 동창은 모교 무용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사를 수료했다. 특별히 미술 작품의 역사와 특징을 공부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의 역량에 대해 고민했던 미술사학도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스마트박물관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화여대박물관의 열정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2년간 다



박은영 동창

하지영(도예 17)·김민지(도예 19)·강민경(도예 21)·박수정(도예 21)·백선주(도예 21)·장자현(도예 21)·홍별(도예 21) 동창

7월 28일(수)부터 8월 2일(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KCDF갤러리에서 열린 ‘품품 프로젝트2’에 참여 및 출품하였다. 품품 프로젝트는 6명의 장애인 작가와 24명의 도예 전공 대학 및 대학원생이 협업하여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전시이다.



(오른쪽부터) 김민지·장자현·백선주·박수정 동창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mailto:ewhaalum@ewha.ac.kr)

# 동 창 이 낸 책



## 나그네 삼부작

이명환(영문 64) 동창

이명환 지음 / 도서출판 소소리

수필가 이명환 동창이 '한국의 수필 대표작 선집' 시리즈의 일환인 「나그네 삼부작」을 펴냈다. 2000년 《한국수필》로 등단한 이후 출간한 세 권의 수필집에서 엄선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이 책에서는 성찬경 시인의 아내이자 성기원(시인, 뮤지션)·성기선(지휘자, 모교 관현악과 교수) 씨 등 오남매의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이명환 동창은 제10회 이화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대동창문인회 이사이자 한국문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왜 교토인가 2

이승신(영문 72)

이승신 지음 / 호연글방

칼럼니스트 이승신 동창의 신간 「왜 교토인가 2」가 일어판과 동시 출판되었다. 2018년에 「왜 교토인가」를 세상에 내놓은 지 3년만이다. 일본에서 오래 생활한 이승신 동창은 교토의 조용한 마을 데마치의 일상과 교토에 남은 윤동주 시인의 자취 등 따뜻하고 잔잔한 이야기를 책에 담아냈다. 이승신 동창은 「삶에 나라에 어찌 꽂피는 봄날만이 있으랴», 「그대의 마음 있어 꽂은 피고」라는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 아름다운 당신에게

김수현(영문 73)

김수현 지음 / 샘터

김수현 동창이 두 번째 수필집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출간하였다.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김수현 동창의 글은 장황하기보다는 단정하고, 담백하고, 따뜻하다. 최고의 수필가 피천득이 추천한 전작 수필집 「세월」 중 다시 기억하고 싶은 열두 개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 영인 정정식

김재원(생미 73)

김재원 역음 / 네오프린텍

고 정정식 교수는 1938년 모교 음악 과에 입학한 제16회 졸업생으로 피아노과 교수로 재임하며 수많은 제자들 를 육성하고 1986년에 정년 퇴임하였다. 고 정정식 교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자들이 스승을 추모하는 글을 모아 회고록을 준비하였다. 이 책에는 한국 피아노 교육의 선도자 영인 정정식 교수의 발자취와 함께 35년간 사제지간의 특별한 만남을 이어온 영인회 제자들의 다채로운 추억담이 실려 있다.



## 기억 공간을 찾아서

안정희(법학 92)

안정희 지음 / 이야기나무

기록연구사 안정희 동창이 박물관, 기념관, 기념비 등 기억의 공간들을 여행하며 적은 기행문을 책으로 냈다. 독일 브레멘 항구의 이민박물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망명한 이미륵 선생의 묘소, 일본 오키나와의 슈리성, 한국의 윤동주박물관 등 가깝고 먼 곳의 기억과 기록을 더듬었다. '기억 공간'은 누구의 기억과 시선으로 기록되는가, 기억 공간을 통해 '잊고자 하는 것'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성찰하고 기록하였다.

안정희 동창은 현재 증평기록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저서로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종이약국」, 「도서관에서 책과 연애하다」가 있다.



## 우리가 쓴 것

조남주(사회 01)  
조남주 지음 / 민음사

밀리언셀러 작가 조남주 동창이 첫 소설집 「우리가 쓴 것」을 출간했다. 대표작 「82년생 김지영」이 1982년생을 중심으로 한 여성 서사였다면, 이번 소설집은 여든 살 노인부터 열세 살 초등학생까지 전 세대 여성들의 인생 경험을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대 '모든' 김지영을 위한 작품집이라 할 수 있다. 소설집은 「여자아이는 자라서」, 「가출」, 「현 남오빠에게」 등 8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돼 있다.



##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김종순(대학원 05)  
김종순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캠핑, 백패킹 등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대 여가복지문화 연구소 연구교수 김종순 동창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과 사례를 함께 제시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을 출

간하였다. 기후 변화와 자연보호 이슈, 교육과 스포츠 활동, 소비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현상을 들여다본다.



## 초등 독서록 쓰기의 기적

이새롬(특교 05)  
이새롬 지음 / 마더북스  
17년차 초등교사 이새롬 동창이 초등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습관을 키워 주는 성공적인 독서와 독서록 쓰기의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현직 교사의 독서록 쓰기 지도 과정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독서록 습관 플래너, 독서록 달력, 단계별 초등학생용 추천 도서, 부모용 기본·심화 추천도서를 부록편에 제시했다.



##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

반유화(의학 09)  
반유화 지음 / 다산초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반유화 동창이 오랜 임상 경험의 정수를 담아낸 첫 책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을펴냈다. 여자라서 겪어야 하는 일들에

마음이 자주 지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12년간 1,000여 명이 넘는 내담자를 만난 반유화 동창은 사회 환경 및 젠더 이슈가 여성들이 지닌 다양한 상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고, 이 문제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여성학을 공부했다. 이 책에서 반동창은 2030 여성의 겪는 12 가지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들을 담았다.



## 한 권으로 종결하는 약국 브랜딩

심현진(약학 19)  
심현진 지음 /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본명보다는 '진심약사'로 알려진 심현진 동창이 약국 브랜딩 노하우를 담은 책을 발간하였다. 심 동창은 장기적으로 약국과 약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한다. 1인 기업으로 마케팅과 판매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약사들을 위해, 약사가 약국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 조언과 함께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카페 네 개의 채널을 통한 브랜딩 전략을 담았다.





SINCE 1999

# 에 스 노 블

두 대통령家의 성혼을 이루어 낸

23년 경험의 VVIP 통합 프리미엄 매칭 노하우

엄정한 심사와 신원인증을 거친 차별화된 회원 네트워크

노블레스 결혼을 이끌어온 최고의 성혼율

집안까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결혼을 원한다면

에스노블



# ROYAL X CLUB

LOUNGE & BAKERY

CREATE

SOAP

경기도 하양시 하양로 895-20 루일렉스나로아울렛 | 화·일: 11:00 - 22:00 | www.royalxkr

ROYAL  
X  
ROYAL & CO